50

1970 Anniversary 2020
SONGNISAN NATION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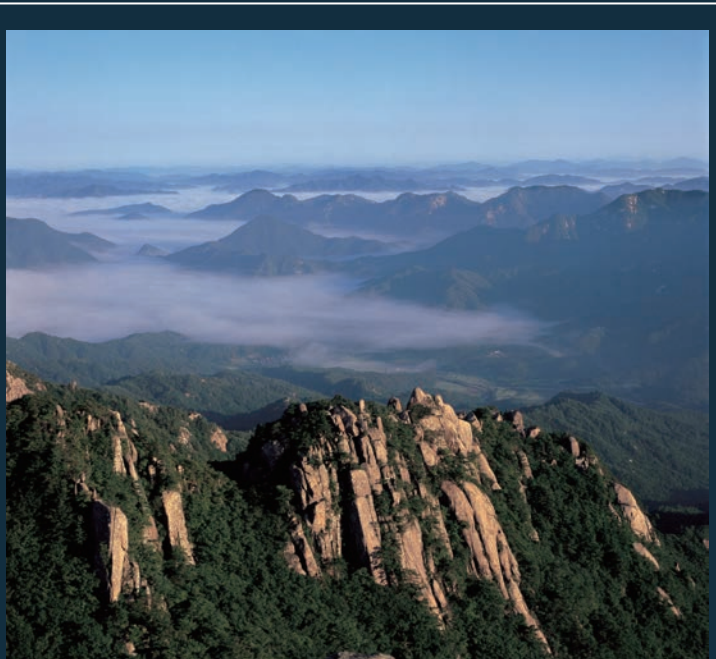
속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자연환경해설사의

속리산 이야기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SONGNISAN NATIONAL PARK OFFICE



문장대에서 바라보는 속리산의 서북쪽 경관

발간사

올해로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1970년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하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의 조선 시대 5층 목탑 '팔상전' 등 국보 3점, 보물 16점, 천연기념물 11점을 포함하여 자연과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과거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은 보고, 즐기기 위한 관광(觀光)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삶이 윤택해지고 여가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탐방(探訪) 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자연환경안내원에서 시작된 탐방 해설이 자연환경해설사라는 전문분야로 자리 잡아 국립공원을 찾는 많은 탐방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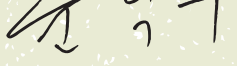
이 책은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진행한 그간의 해설과 시나리오 등을 묶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나무를 시작으로 속리산에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자연·생태 이야기를 다루었고, 두 번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법주사를 바탕으로 속리산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에는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과 많은 탐방객이 찾는 문장대, 우암 송시열 선생이 기거했던 화양구곡 등 속리산에 숨겨진 지명, 명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다소 투박할 수 있지만,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와 경관, 그리고 역사·문화 이야기를 담아내기까지, 이 책을 만들기 위한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열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속리산국립공원의 탐방해설 부문에 마중물이 되길 소망하면서 긍정적으로 열정을 다해 끝까지 애써주신 자연환경해설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속리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와 문경시에 걸쳐 있습니다.
속리산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세속 속(俗), 떠날 리(離)로 '속세를 떠나는 산', '속세에서 떨어져 있는 산'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산봉우리가 아홉 개가 있다.'해서 '구봉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제10회 국립공원사진전_속리산이보이는풍경_여정운作

속리산국립공원은 1970년 3월 24일에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속리산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천년고찰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물이 맑기로 소문난 화양구곡, 쌍곡구곡, 만수계곡 등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빼어난 절경으로 일 년 내내 찾고 싶은 곳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수려한 산세를 간직한 자연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정이품송(正二品松, 천연기념물 제103호),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등 847종의 식물과 까막딱따구리(천연기념물 제242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등 희귀 동물을 포함하여 2,160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화강암 기반의 돌산인 속리산은 화강암의 특성인 흰 빛의 둥근 맛을 보이는 수려한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봉, 계곡, 기암, 폭포 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자연과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정이품송

속리산국립공원은 역사문화유산의 보물창고를 간직한 문화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인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천년이 넘는 역사와 수많은 문화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주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탑 '팔상전', 통일신라시대 석등 '쌍사자석등' 등 국보 3점, 보물 16점, 천연기념물 11점, 시도유형문화재 27점 등 문화유산의 보물창고입니다. 또한,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복천암에 있던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순행(巡幸)을 왔던 곳으로 피부병 치료차 요양을 했던 곳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는 세조임금과 관련한 '세조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세조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탐방로 입니다. '세조길'은 사계절 특색이 뚜렷한 수변경관과 피톤치드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춰 힐링과 건강을 주는 속리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물길 따라 흐르는 속리산!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1,058m) 정상에서 떨어진 빗물이 서북쪽으로 흐르면 남한강, 동쪽으로 흐르면 낙동강, 남쪽으로 흐르면 금강으로 세 갈래 물줄기로 나누는 동시에 이들 세 강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가다보면 남한강으로 흐르는 달천이라는 하천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천을 따라 큰 물줄기를 기점으로 천년고찰 법주사, 정이품송, 화양구곡, 쌍곡구곡이 이어져있습니다.

물 흐르듯 곳곳이 숨겨진 속리산, 물길 따라 시작되는 속리산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속리산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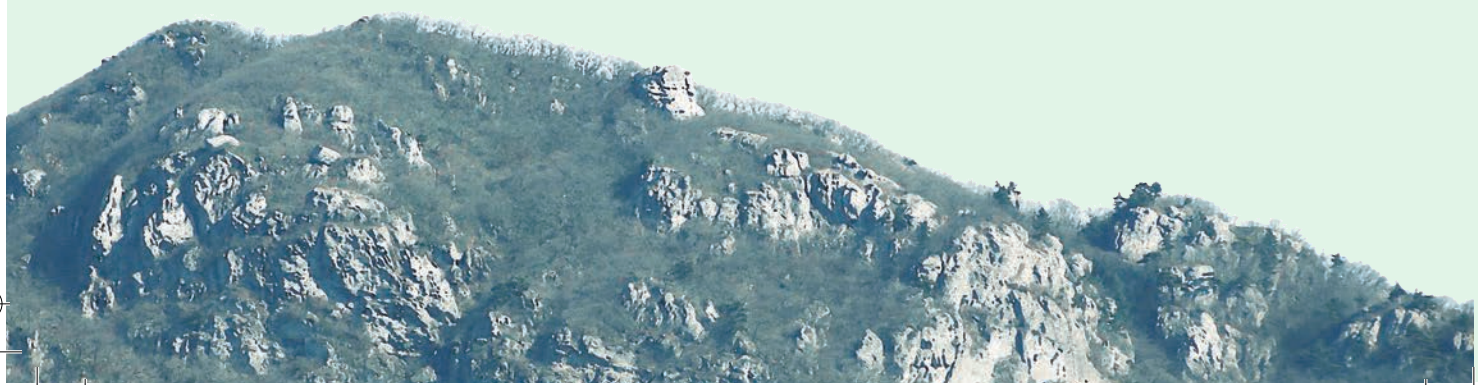
이천순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생태]

"아름다운 속리산에서 해설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슴이 휑하니 어수선할 때 위로가 되는 바람의 빛을 느끼며, 우리 모두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행복했으면 합니다."



김용헌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경관]

"속리산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언젠간 꼭 해보고 싶었던 위시리스트 중 하나가 나만의 시나리오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작업이었고, 동료들과 함께 해냈기에 더욱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윤주영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경관]

"봄이 왔다고 속삭이는 숲의 전령사들이, 이리저리 수줍게 얼굴을 내밀며, 온 산 전체를 따뜻함으로 감쌀 때, 우리들의 이야기도 함께 피어납니다. 50년이란 세월 속에 속리산은 힐링과 추억의 장소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살아 숨 쉬는 자연이 수백년, 수천년 이어지도록 많은 이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사로 인연을 맺어 때로는 나의 언니, 오빠로 그리고 동생이 되어준 직장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추인식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역사·문화]

"앞으로도 더욱 깊어갈 속리산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혹은 다른 것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확인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연환경해설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더 배우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게 됩니다."



강현지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생태]

"속리산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해설을 했던 탐방객이 다시 속리산을 방문하여 저를 먼저 알아봐주고 그때를 기억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속리산 이야기를 쓰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속리산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소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탐방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해설 정보가 책으로 정리가 되어 만들며, 서로가 공유 하면서 해설사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해설집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기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집을 내기 위해 힘써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열정을 담았습니다."



양승희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생태]

"단비가 봄 풀들을 깨우며 속삭이네요. '더 멋진 해설을 위해 함께 걷는 이 길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속리산의 수풀들은 이 단비를 마시고 더욱더 빼어난 경관으로 거듭나 탐방객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속리산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과 소중함을 한 번 더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윤태현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역사·문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속리산에서 이름을 남기게 되니 가문에 영광이요, 선산에 때까치가 울었나 봅니다.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탐방객들을 접하고 그 분들이 제 해설에 감흥하면서 국립공원에 대해 흥미를 느낄 때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번 기회에 동료 해설사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배우게 되어 감사하고 애틋한 마음마저 듭니다.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속리산국립공원의 50년을 위해 더 배우고 노력하여 다시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해설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김지혜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생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은 한권의 책과 같다'는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지요. 현명한 사람은 단 한 번 밖에 읽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시간동안 내가 가진 기본을 다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 이 책을 읽으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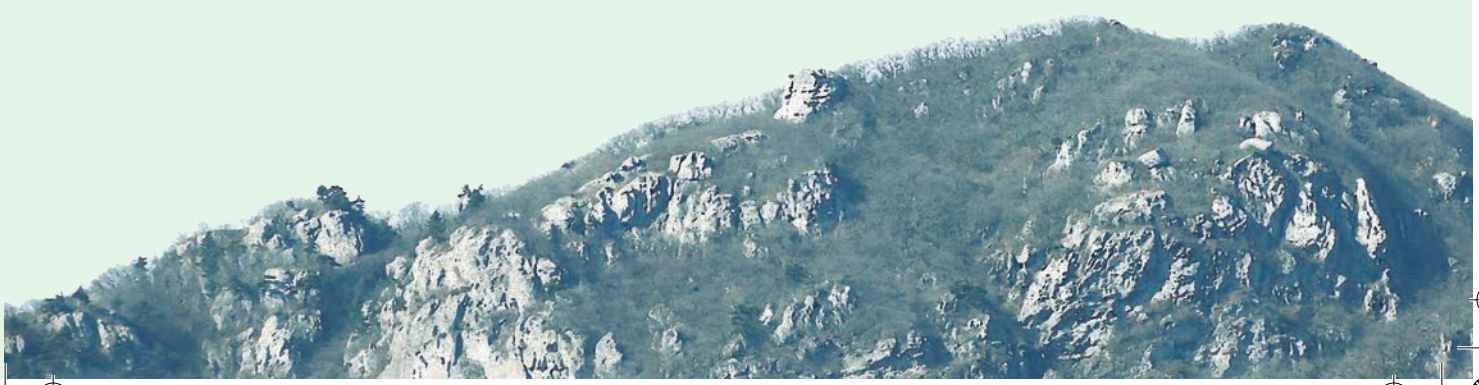
신재형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경관]

"나비효과처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듯이 이 책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속리산에 대해 알아가고 점점 커져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아람 자연환경해설사[전문해설분야_자연·생태]

"어떤 일이든 기본을 다하고 다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설의 기본을 다잡아 줄 길잡이 책을 통해 다른 자연환경해설사와 공유했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해설에 대한 저의 열정과 애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른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법이 저와 다른 것이 너무나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차

자연·생태

1 | 속리산의 깃대종, 하늘다람쥐와 망개나무 14
2 | 늘 푸른 우리 소나무 16
3 | 장관벼슬을 받은 소나무, 정이품송(正二品松) 18
4 | 달콤한 향기가 나는 나무, 계수나무! 19
5 | 자식사랑이 큰 나무, 단풍나무! 20
6 | 우리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미선나무 22
7 | 진달래와 산철쭉이 피는 봄 23
8 | 알싸한 동백꽃의 향기, 생강나무 24
9 | 사내동(洞) 주민과 함께한 조릿대 이야기 26
10 | 우리 숲의 진짜 나무를 찾아서... 28
11 | 안정된 숲 속 자연, 함께 만들어요! 30
12 | 숲을 느끼는 방법, 산림욕-건강주머니 체험 34
13 |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 38
14 | 누린내가 나는 누리장나무 40
15 | 속리산에서 처음 발견된 야생화, 속리기린초 41
16 | 갈등(葛藤)의 어원, 칡과 등나무 42
17 |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이끼 43
18 |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만나 44
19 | 여름을 깨우는 소리, 매미소리 46
20 |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삶, 갈겨니와 피라미 48
21 | 숲속의 드러머 딱따구리-딱따구리 성장 놀이 50
22 | 우리나라 수생 생태계의 1인자 수달 54
23 | 귀여운 얼굴의 포식자, 담비! 56
24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죽은 나무-숲 살리기 놀이 58

[자연체험 활동]

1 천연비누체험 62
2 천연염색체험 64

문화·역사

25 | 속리산과 비석이야기 68
26 | 법주사의 시작! 일주문 70
27 | 금강역사가 지키는 금강문 71
28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천왕문 72
29 | 신라와 백제의 만남 석련지 74
30 | 우리나라 유일의 5층 목조탑 팔상전 76
31 | 통일신라 석등 예술의 정점! 쌍사자 석등 77
32 | 법주사 미륵대불의 변천사 78
33 |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80
34 | 불교 유적지에서 만나는 유교식 건축, 선희궁 원당 82
35 | 소신공양을 행하다. 희견보살상 83
36 | 원하면 통하리라, 관세음보살의 원통보전 84
37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조상을 모신 대웅보전 86
38 | 10지옥을 만나는 명부전 88

지명·명소

39 | 세조가 걸었던 순행의 길 92
40 | 세조의 피부병을 고쳤다는 목욕소 94
41 | 왕이 다녀간 복천암 95
42 | 왕의 탯줄을 모신 명당, 태실 96
43 | 우리도 화북~문장대 코스를 가보자! 98
44 | 화북에서 만나는 시원한 폭포 이야기 102
45 | 속리산 최고봉, 천왕봉 104
46 | 조선의 유교문화가 깃든 화양서원 106
47 | 도가 비로소 다시 싹트는 곳, 화양구곡 108
48 | 도를 깨달아 지성을 드리는 곳, 도명산 111
49 | 신선이 노닐다 가는 선유구곡 112
50 |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각연사 114
51 | 일곱 개의 보석과 같은 절경을 가진 칠보산 116
52 | 군자의 모습을 닮은 군자산 117
53 | 기암절벽 사이로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 쌍곡구곡 118
54 | 깊은 골짜기를 돌아 물이 흐르는 갈론구곡 120

[부록]
세조길로 떠나는 자연이야기 122





자연·생태

1

속리산의 깃대종, 하늘다람쥐와 망개나무

김지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을
꼽으라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반달가슴곰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통해 우리 숲으로 돌아온 동물이기도 하고, 국립공원 곳곳에서 귀여운 반달가슴곰 캐릭터 '반달이'를 만날 수 있어서 친숙합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반달가슴곰처럼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을 '깃대종'이라고 합니다. 깃대종은 UN(국제연합)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환경계획'[1]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한 지역을 생태적·지리적·문화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깃대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망개나무와 하늘다람쥐입니다.



망개나무 *Berchemia berchemiifolia*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1] 국제연합환경계획 :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관련 종합 조정 기관

망개나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만 자생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나무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속리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된 망개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나무를 대신해서 지금은 탈골암 근처 다른 망개나무를 천연기념물 제207호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망개나무를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망개나무는 자연 번식이 어려워 집단으로 자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개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계곡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26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망개나무는 워낙 적은 숫자의 나무들이 근근히 생명을 이어오다 보니 '자식약세'로 인해 점점 번식력이 약해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군락지 보호와 속리산국립공원의 꾸준한 번식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속리산의 또 다른 깃대종! 눈이 매우 크고 초롱초롱한 하늘다람쥐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비막'이라고 불리는 가죽이 있는데, 사지를 쫙 펴고 행글라이더 같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활공 거리는 7~8m로 최대 30m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랗고 구슬처럼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눈을 보면 아시겠지만 야행성 동물이고 낮에는 주로 딱따구리가 버린 둥지나 오래된 나무의 옹이구멍 같은 곳에서 쉽니다. 잣나무와 참나무가 섞여 있는 숲이나 잣나무와 소나무가 자라는 침엽수림에서 홀로 또는 둘이 모여 살고, 나무 열매, 부드러운 잎, 꽃, 곤충 등을 먹습니다.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 제328호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습니다.

2
늘 푸른 우리 소나무

추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나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실행하는 설문조사 문항 중 '숲 하면 생각나는 나무'를 묻는 문항이 있는데 이 설문이 시작된 이래로 한번도 '소나무'가 1위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솔나무'가 변한 말로, 우리말 '솔'은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그 푸름을 잃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 강인함을 존경해 선비의 상징이자 모든 나무의 으뜸으로 여겨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잎을 걸어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렸고, 소나무로 만든 가구와 생활도구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소나무 관에 들어가 소나무 숲에 묻혔으니 일생을 함께하는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궐이나 사찰을 지을 때에도 소나무를 사용하였는데, 다른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 속까지 썩어서 부서지지만 송진이 가득 찬 소나무는 중심의 목심이 단단하게 남아 건물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소나무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추석의 송편 밑에 솔잎을 깔아 쪘고,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중의 하나이며,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민화나 한시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 깊은 곳에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나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소나무는 일생을 함께하는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잎이 바늘과 닮은 침엽수인 소나무는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은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늘잎의 개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바늘잎이 2개씩 모여 자랍니다. 외래종인 북아메리카 원산의 리기다소나무는 바늘잎이 3개씩 모여 자랍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나무로는 솔방울이 아닌 잣 방울이 달리는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는 바늘잎이 5개씩 모여 자라는 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푸르른 숲을 사계절 내내 유지하는 소나무는 이제 점점 우리의 숲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전염되는 소나무재선충은 1mm정도의 선충으로 스스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곤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 먹을 때 솔수염하늘소의 주둥이에 붙어 소나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병이 걸린 소나무는 잎이 시들고 가지가 쳐지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어 병에 걸린 나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염을 막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숲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소나무는 점점 숲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들이 많은 숲으로 잎이 널따란 활엽수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건 숲이 세월에 따라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나무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우리 숲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은 속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일이죠. 아쉽지만 우리 기억과 마음속에 소나무를 담아두고 숲이 자라며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장관벼슬을 받은 소나무, 정이품송(正二品松)

이천순



정이품송(80년대 말)



정이품송(2015년)

속리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나셨을 겁니다.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정이품송이지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복천암에 계셨던 자신의 스승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속리산으로 향하는 도중 이 소나무를 마주치게 되면서 정이품송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마를 타고 이 소나무 밑을 지나가던 세조는 자신이 탄 가마가 소나무 가지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소나무 가지에 가마가 걸린다." 하고 말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복천암에서의 일정을 끝낸 세조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는데 이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자신을 이렇게 도와준 소나무에게 지금의 장관급 벼슬인 '정이품(正二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소나무를 정이품송이라 부르고, 소나무가 가진 웅장함과 기개를 칭송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처음의 웅장함이 조금 사라졌지만 지금도 눈, 비, 바람을 이겨내며 여전히 고목(古木)의 웅장함과 기개를 펼치는 속리산의 자랑입니다.

4

달콤한 향기가 나는 나무, 계수나무!

윤주영



‘토끼와 달’ 하면 떠오르는 나무!
바로 계수나무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반달의 영향일건데요. 짧게 도입부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그 달에는 누가 살까요? 네,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방아를 찧으며 살고 있는 달토끼가 등장하는 동요!! ‘반달’에 나오는 계수나무입니다.

중국에서 관상 조경으로 뜰이나 가로수로 심기 위해 들여온 나무로, 숲속에 솜사탕 향기가 가득해지면 가을이 왔다고 느끼게 해주고 우리의 후각을 스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수나무의 특징은 바로 좋은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냐 하면 어린 시절 많이 만들어 먹었던 달고나 뽑기처럼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달콤한 향기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10월경에 노란 단풍이 들 때쯤이면 향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잎 속에 들어 있는 말톨[2] 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낙엽송 나무껍질이나 소나무 잎 등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계수나무 *Cercidiphyllum japonicum*

이 계수나무의 잎을 보면 마치 하트 모양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계수나무를 사랑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계수나무는 달달한 향기와 하트를 닮은 잎 때문에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장소로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계수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거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2] 말톨 : 주로 향미증진제로 사용되는 자연 발생 유기 화합물(분자식-C6H6O3)

5
자식사랑이 큰 나무, 단풍나무!

윤주영

자~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쫙 펴볼까요?
섬섬옥수 여러분의 예쁜 손가락을 닮은 나뭇잎이 있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단풍나무죠.
우리가 아는 단풍나무는 자세히 보면 잎이 갈라지는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잎사귀 둘레가 찢어져 뾰족뾰족 나온 낱낱의 잎이 3개면 신나무, 5개는 고로쇠나무, 7개는 단풍나무, 9개는 당단풍, 11개인 것은 섬단풍이예요.



단풍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사진을 보면 무슨 모양으로 보이나요? 꼭 씨앗에 예쁜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보이진 않나요? 왠지 프로펠러 모양을 닮기도 하였는데 왜 씨앗을 감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과 햇빛,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엄마나무 바로 밑에서 떨어진다면 물과 햇빛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뭐든 하나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항상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 알맞은 장소에 떨어져 키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날개모양을 달아 준거예요. 자식을 생각 하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단풍나무 씨앗



단풍나무 *Acer palmatum*

단풍나무 인기가 가장 많은 계절은?

그렇죠, 가을인데요! 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단풍나무는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변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우리 눈에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나뭇잎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든 겨울을 나기 위해 수분과 영양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지요.
이때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는 코르크처럼 단단한 떨켜가 만들어지는데 떨켜가 만들어지면 나뭇잎은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도 줄기로 이동하지 못해 잎에 남게 됩니다.

영양분을 더 만들 수 없게 된 잎에서는 엽록소가 점점 파괴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랑이나 빨강 같은 다른 색소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단풍의 빛깔은 같은 수종이라도 가용성 탄수화물 양의 차이에 따라 개체변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단풍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날씨가 건조해야 하며 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에서 기온이 낮아야 한다고 합니다.
붉은빛을 띠는 색소인 안토시아닌과 노란빛을 띠는 색소인 크산토필은 온도 차가 클수록 화학 작용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의 기온 차가 크면 울긋불긋 단풍이 더 아름답게 물든답니다. 단풍은 산마루에서 시작해서 계곡으로 내려오고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해의 날씨, 기온에 따라 단풍이 드는 시기는 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속리산은 10월 하순에서 11월 둘째 주까지가 단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산홍엽(滿山紅葉), 바로 온 산의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다는 가을산의 단풍을 표현한 말, 벌써부터 올해 속리산의 멋진 가을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 속으로 멋진 인생사진 남기러 속리산을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미선나무

추인식



미선나무 열매(씨앗) 모양

여기 아주 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봄이면 향기로운 흰색 꽃을 피우는 나무로 열매가 마치 둥근 부채 모양이라 하여 미선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흰색의 꽃은 개나리꽃과 아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에 향기가 거의 없는 개나리와는 달리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의 토종식물로 영문이름 조차 Miseonnamu(미선나무)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과 전북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귀한 나무로, 아쉽게도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영영 사라져 버릴 식물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선나무의 꽃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꽃말처럼 미선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나무가 되었지만 속리산국리공원에서 보전과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SONGNISAN NATIONAL PARK

7
진달래와 산철쭉이 피는 봄

김용헌

여러분, '봄'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개나리나 진달래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겠죠. 속리산에서도 개나리나 진달래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숲속에서 개나리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진달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진달래를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달래가 피는 봄이 되면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진달래꽃을 따 먹기도 하고, 화전을 부쳐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달래는 4월에 두견새가 울 때 피는 꽃이라고 해서 두견화라고도 불렸고,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해서 참꽃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이 간단한 요깃거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고마운 꽃이었던 것이죠. 이런 진달래와 비슷한 시기에 피며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철쭉입니다.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산철쭉은 조경용으로 인기가 많아서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산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기에 개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 추억에 젖어 산에 핀 철쭉을 진달래로 오해하고 따서 드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이제 예쁜 꽃은 예쁘게 보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철쭉인지, 진달래인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간단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대표하는 꽃답게 봄꽃 특징 그대로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산철쭉은 꽃과 잎이 같이 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만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요, 꽃받침이 진득거리면 산철쭉, 진득거리지 않으면 진달래인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꽃 속을 보면 산철쭉은 꽃 색에 맞추어 거므스레한 반점들이 보이지만, 진달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보는 것도 자연을 느끼는 방법이겠지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숲속의 꽃들도 자세히 보면 모두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닮은 점과 다른 점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좀 더 즐겁게 숲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8

알싸한 동백꽃의 향기, 생강나무

이천순

24

다들 김유정 작가님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동백꽃이라는 작품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열일곱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다룬 소설이죠. 이 소설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뭣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 동백꽃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은 노란 동백꽃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동백꽃은 어떤 색의 동백꽃인가요? 네,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김유정 소설가는 노란 동백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알아봐야죠. 바로 강원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동백꽃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어서 빨간 동백꽃이 피기 어려운 곳이죠. 그렇다면 이 노란 동백꽃은 어떤 나무에서 피는 꽃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설에 바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산수유나무 *Cornus officinalis*

옛날에는 빨간 동백꽃을 피우는 동백나무의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발랐고, 그 기름을 ‘동백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따뜻한 남쪽이나 추운 북쪽이나 똑같았다고 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분들도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당연히 필요했고, 그 기름이 나오는 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알싸하고 향긋한 향기를 가진 노란 동백꽃은 바로 생강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은 생강나무를 김유정 소설가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생강나무와 비슷해서 헷갈리는 산수유나무도 속리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와 민가에서 재배하여 약재로 이용했던 나무입니다. 산수유나무 열매를 재배해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대학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노란 꽃을 피우는 나무는 생강나무가 아닌 산수유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헷갈리는 이 두 나무를 구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쉬운 구분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피를 보겠습니다.

생강나무는 깨끗한 수피에 흰 무늬가 있지만 산수유나무는 껍질이 벗겨진 지저분한 수피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잎을 볼까요?

생강나무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진 잎이지만 산수유나무는 긴 타원형에 잎맥이 선명합니다.

이번에는 꽃을 보겠습니다.

두 나무 다 이른 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것은 같지만 생강나무는 줄기에 붙은 둥근 형태의 꽃 모양이지만 산수유나무는 줄기 끝에 뾰족뾰족한 형태의 꽃 모양을 하고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도 쉽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산수유나무는 기다란 타원형의 열매이고 새빨갛게 열매가 익지만 생강나무는 동그랗고 까만색으로 열매가 익기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생강나무



산수유나무



생강나무 열매



산수유나무 열매

알고 보면 아주 쉽죠?

봄의 숲을 노랗게 물들여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를 만나보았습니다.

9

사내동(洞) 주민과 함께한 조릿대 이야기

양승희

조리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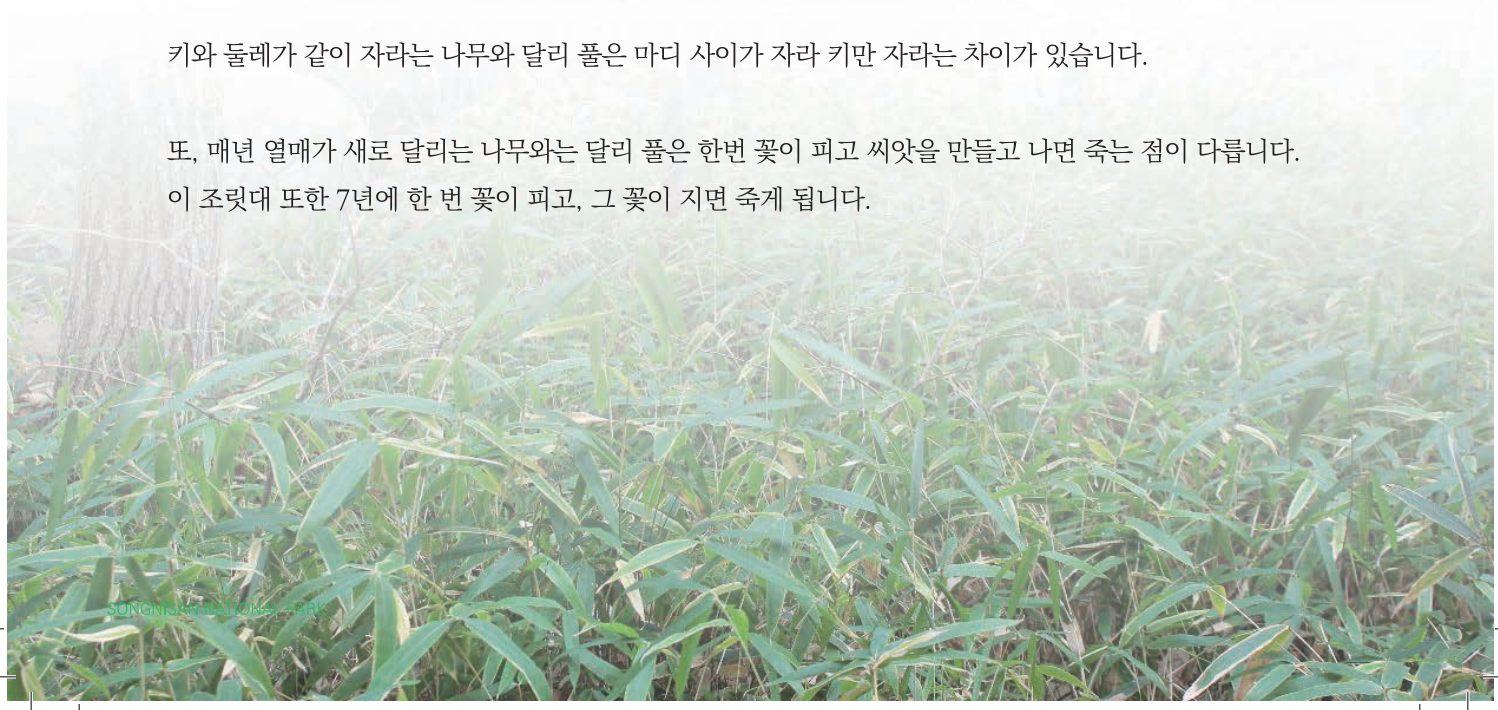
밥을 짓기 위해 쌀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도구를 조리라고 합니다.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는 요즘에는 쓸 일이 많이 줄어들어 주로 정월대보름에 집에 복을 부르기 위한 복조리 장식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조리를 만들던 대나무를 '조릿대'라고 합니다.

산에 사는 대나무, '산죽山竹'이라고도 부르는 조릿대는 속리산의 초입인 세조길 주변과 정상부인 문장대와 천왕봉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릿대는 우리나라에 사는 대나무 중 가장 키가 작은 대나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조릿대 같은 대나무는 이름과는 달리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점입니다.

키와 둘레가 같이 자라는 나무와 달리 풀은 마디 사이가 자라 키만 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매년 열매가 새로 달리는 나무와는 달리 풀은 한번 꽃이 피고 씨앗을 만들고 나면 죽는 점이 다릅니다.
이 조릿대 또한 7년에 한 번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죽게 됩니다.



"조릿대 군락은
숲에 살고 있는 작은 동물들에게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 줍니다."


조릿대 잎


조릿대 꽃


조릿대 씨앗

보시는 것처럼 조릿대는 빽빽한 군락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군락은 사실 전부 한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라서 7년에 한 번 꽃을 피운 후에는 전부 죽어서 없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 다시금 조릿대가 새로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조릿대 군락은 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조릿대에는 우리를 피해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작은 동물들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는 푸르른 자연의 색을 제공해주는 조릿대는 다른 어린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들어 숲의 다양성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베어내기도 합니다.

숲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맞을까요? 조릿대를 베어 숲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 작은 동물들의 은신처를 유지해야 할까요?
과연 조릿대를 베어낸다고 숲의 다양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쌀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일 년의 행복을 걸러낸다는 복조리의 의미처럼 이 숲이 조릿대를 통해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우리 숲의
진짜 나무를 찾아서...

김용헌

우리나라 숲에 가장 많은 수종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소나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속리산을 둘러보아도 푸른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숲에 가장 많은 수종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말합니다. 참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를 총칭해서 참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에게도 각각의 이름이 따로 있겠죠?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유래와 특징을 가진 6종류로 나눕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참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를 총칭해서 참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떡갈나무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잎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굉장히 넓죠?

참나무 중에 가장 잎이 넓다보니 옛날에 이 잎을 이용하여 떡이나 밥을 싸서 보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쌀 만큼 잎이 넓다하여 떡갈나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는 상수리나무는 임금님이 피난을 갔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하여 신하들이 도토리 열매로 묵을 쑤어 드렸는데 궁에 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이후 임금님의 상인 수랏상까지 올랐다하여 상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나무의 수피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른 나무의 수피보다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나요?

바로 굴참나무의 수피로, 와인마개인 코르크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거나 불에 잘 타지 않아서 강원도 산간지방에선 지붕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나무 중에서는 잎과 열매가 가장 작아서 넌 졸병이나 해라해서 붙여진 졸참나무! 열매는 작아도 도토리묵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랑은 다르게 수피가 얇게 벗겨진다고 해서 '옷을 갈아입는다.' 고 이름 붙은 갈참나무! 마지막으로 옛날 짚신을 신고 다니던 시절, 짚신이 해지고 떨어지면 이 두툼한 잎으로 밑창을 깔았다고 하여 신을 간다 해서 신갈나무. 이렇게 여섯 종류의 참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참나무 같은데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 숲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에게도 참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소중한 먹이가 되어주고, 둥지를 만들 장소도 되어주는 등 숲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참나무처럼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 진짜 멋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11

안정된 숲 속 자연, 함께 만들어요!

윤주영

30

숲속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푸른 나무,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와 같이 자연의 색과 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 숲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자연에 관련한 재미있는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 자~ 파란 하늘 깊고 깊은 숲속에 초롱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사각사각' 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메뚜기가 초롱꽃의 잎을 갉아먹는 소리였네요. 잎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메뚜기가 펄쩍 뛰다가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 메뚜기를 돌돌 감아 냠냠 맛있게 먹습니다. 메뚜기를 맛있게 먹은 거미가 낮잠을 자려는 순간! 개구리가 긴 혀로 빠르게 거미를 한 입에 꿀꺽 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난 개구리가 노래 한 곡 하려는 순간, 뱀이 나타나 개구리를 삼켜 버렸습니다. 뱀이 느긋하게 소화를 하려고 나뭇가지 위로 기어 올라갔을 때! 올빼미가 뱀을 잡아먹습니다. 이번엔 나무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꾀 많은 여우가 올빼미를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오랜만에 배가 부른 여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크고 힘센 앞발을 가진 호랑이가 여우를 단숨에 잡아먹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랑이가 죽으면 파리와 구더기가 오글오글 모여 들면서 호랑이가 흙 속에 묻힐 때까지 먹어 치웁니다. 흙 속에 묻힌 호랑이의 찌꺼기는 흙 속의 미생물이 더 잘게 나누고 분해해서 좋은 영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그 흙 속에서 다시 예쁜 초롱꽃이 피어나고 메뚜기가 초롱꽃의 잎을 맛있게 갉아 먹겠죠?

이렇게 자연 속 동식물은 서로에게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숲이 바로 안정된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다우림「아, 배부르다」

이번에는 놀이를 통해서 이 안정된 숲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놀이를 해볼 텐데요, 같이 해주실 분?

여기 놀이판이 있습니다. 놀이판의 각 모서리를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출발선에 도토리(사람)를 놓겠습니다.
(출발~도착까지 길을 따라 도토리를 옮기는 놀이를 한다)
이렇게 안정된 숲에서 사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숲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파괴입니다. 사람에 의해 파헤쳐 진 자연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 길을 만들고, 댐을 세우고, 골프장과 같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처를 잃은 야생 동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생태통로 또한 단절되면서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놀이판에서 야생 동식물을 떼어내 구멍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안정된 숲이 아닌 우리가 파괴한 숲속에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출발~도착까지 길을 따라 이동, 도토리가 구멍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 길을 만들고, 댐을 세우고, 골프장과 같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파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심각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도 파괴된 자연 속에서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방법들 말입니다.

나 하나만 실천한다고 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실천한다고 하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자연이 미래에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12

숲을 느끼는 방법, 산림욕

신재형

산림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산림욕이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 숲에서 산책하거나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욕은 피톤치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속리산국립공원의 세조길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의 피톤치드 발생량 최고 점수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이 길을 저와 함께 오감(五感)을 통해 체험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감을 자극해서 숲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극해볼 감각은 촉각입니다. 손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맨발을 통해 숲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닥의 흙이나 씨앗으로 인한 오톨도톨한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땅의 촉촉함과 기분 좋은 시원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맨발로 숲속을 걸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다고 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세조길



나이테

이번에는 시각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동만 남은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볼까요? 나무의 나이테로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던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넓고 좁음에 따라서 이 나무가 살아온 자연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와 날씨가 좋으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넓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나이테 간격이 좁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나무의 나이테는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후각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생강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잎이나 가지를 잘라 비비면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나무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는 산초 특유의 냄새가 나며 향신료로도 사용됩니다. 향을 한 번 맡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생강과 산초의 냄새를 아시겠나요?

이제 미각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잎은 좀 전에 만난 산초나무 잎입니다. 산초나무 잎은 매운 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잎에서 나는 맛도 있고 꽃에서 나는 맛도 있고 씨앗에서 나는 맛도 있지만, 숲속 식물을 아무거나 맛보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준비한 것으로만 체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촉각, 시각, 후각, 미각을 자극해보했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감각은 무엇일까요? 네, 청각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에 내가 생각하는 소리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나뭇잎을 지나치는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어떤 모양으로 표현해볼까요? 어떤 모양으로 그리든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숲을 만나보았습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세조길에서 감각을 자극하며 숲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은 언제나 건강한 자극을 주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심신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숲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산림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이 숲이 건강해야겠죠? 이 숲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주머니 체험

체험을 하는 이유

향낭(건강주머니)은 고려시대부터 이용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노리개로 차거나 따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노리개에는 복이나 장수를 의미하는 문자나 문양을 새겨서 지니고 다녔고,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귀부인들은 금향낭을 많이 지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세조길에서는 피톤치드와 같은 건강에 좋은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침엽수, 소나무의 향으로 건강주머니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아봅니다.



사전 준비 사항



[놀이 준비 재료]
샤쉐스톤*, 정제수, 에탄올, 아로마오일**, 속주머니(다시팩),
색주머니, 지퍼백, 쉐이커통, 체험통, 식탁보

*운모계의 광석을 1000℃로 가열하여 만드는 천연 재료입니다. 향을 입히기 쉽고 가벼우나 쉽게 부서지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나무 향으로 준비합니다. 소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침엽수입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내뿜은 살균성 물질로, 식물이 해충이나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뿜습니다.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살균 작용 등의 효과를 줍니다.

체험 방법



1

샤쉐스톤을 체험하는 인원에 맞춰 체험통에 담아 준비한다.

1) 샤쉐스톤 1인 사용량은 종이컵 ½ 정도 (다시팩 中 기준)



2

쉐이커통에 샤쉐스톤, 정제수, 에탄올, 아로마오일을 넣고 흔들어 준다.

1) 샤쉐스톤 : 향기를 머금을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방향제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
1인 사용량 종이컵 ½ 정도.
2) 정제수 : 아로마오일의 향을 샤쉐스톤이 더욱 오래 머금을 수 있도록 돕는다.
1인 사용량 5ml.
3) 에탄올 : 샤쉐스톤에 숙성시킨 아로마오일 향의 발산을 돕는다. 1인 사용량 5ml.
4) 아로마오일 : 샤쉐스톤에 입히는 향이다. 아로마오일의 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피톤치드와 연관 있는 소나무 향의 아로마오일을 사용한다.

[주의사항]
쉽게 부서지는 샤쉐스톤의 특징을 설명하며 10~15회 살살 흔들 것을 주의시킨다.



3

쉐이커통에 있는 샤쉐스톤을 속주머니에 담는다.

[주의사항]
바닥에 샤쉐스톤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바닥에 깔 것을 준비해둔다.



4

속주머니를 색주머니에 넣고 지퍼백에 넣어서 하루 숙성 후 사용한다.

1) 샤쉐스톤에 아로마오일의 향이 잘 입혀지도록 하루 정도 숙성을 하면
더욱 오래 향이 지속될 수 있다.

13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

지아람

가을이 되면 잎이 노랗게 물드는 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예쁜 잎사귀에 색이 들지만 이 나무 근처에 다가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나무의 열매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입니다. 노랗게 물들면서 냄새가 고약한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잎



은행나무 *Ginkgo biloba*

은행나무는 가을 단풍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숲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행나무는 공룡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던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생존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은행나무는 그 오랜 시간, 그 모진 세월을 다 거치고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은행나무는 공룡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던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생존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행나무의 구린 냄새 때문입니다. 인간도 동물인지라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동물도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때문에 이 은행나무 근처로 얼씬도 하지 않죠. 그 구린 냄새는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에서 나는 것인데요, 그 냄새로 인해 은행나무는 자질구레한 병충해도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지구에 살아왔고, 우리가 가로수로 아주 흔하게 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만 야생에서 은행나무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은행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줄 동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먹고 씨앗 껍질을 깨준 동물이 존재했지만 여러 번의 빙하기를 거치며 멸종해버린 바람에 사람이 직접 재배를 하지 않고는 야생에서 은행나무가 스스로 번식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죠.

인간이 상상도 못할 기나긴 시간을 버티며 살아온 은행나무의 결말은 결국, 언젠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현재 은행나무의 자생지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에만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나무들의 자생지마저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은행나무가 스스로 번식하고 살아가는 곳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 스물세 그루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천 년이 넘는 고목(古木)들도 존재합니다. 은행나무는 오랜 시간 이 지구에 살아왔고 지금도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린 냄새로 피하게 되는 나무지만, 은행나무의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누린내가 나는 누리장나무

강현지



숲에는 다양한 식물이 있고,
그 식물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냄새나 향기가 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잎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 한 번 가까이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구리구리하고 노릿한 냄새가 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이 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화장실 근처에서 많이 맡을 수 있는 냄새로 누린내가 나는 나무라고 하여 누리장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개(犬)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고 해서 '개나무', 냄새가 구리다는 뜻으로 '구릿대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리장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ex murray

옛날 사람들은 논밭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리장나무 잎을 따다가 잎에 적당히 상처를 내어 파리나 모기가 많은 재래식 화장실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생긴 잎에서 나오는 지독한 냄새로 벌레들이 도망을 치는 것이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생물을 죽이지 않고 잠시 멀리 할 수 있게 하였던 옛날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잎뿐만 아니라 열매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의 누린 냄새를 누리장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냄새로 착각할 수 있도록 화장실 주변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인데 누리장나무가 많이 있다면 이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꽃이나 열매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예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리장나무입니다.

15
속리산에서 처음 발견된 야생화, 속리 기린초

윤주영

속리산에도 속리(俗離)란 이름이 붙은 영광스런 야생화가 있는데요,
바로 속리기린초입니다.

속리산에서 처음 채집되어 지명이 접두어로 붙어 속리기린초라고 하는데 한국특산식물로 속리산과 군자산 지역의 바위틈에 붙어 자라 바위기린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속리기린초의 생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속리기린초는 뿌리줄기가 목질화되어 나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적자색이 도는 줄기는 뿌리줄기로부터 뭉쳐나면서 비스듬히 자랍니다. 잎은 거꾸러진 달걀모양 또는 주걱모양으로 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와 짧은 입자루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꽃은 6~7월경 황색으로 줄기 끝에 달리며 꽃받침잎과 꽃잎은 5개로 끝이 뾰족하며 별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자라 날 때는 붉은색의 줄기와 녹색 잎이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속리기린초
Sedum zokuriense Nakai

속리산국립공원의 토질은 마사토질의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속리기린초 외에도 이곳에 자생하는 야생화는 생명력이 강하고 꽃잎의 색깔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나 작아 눈에 띄지 않고, 설령 발견하더라도 이름조차 모르는 야생화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숲속 세상에 시선이 머무는 여유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

갈등(葛藤)의 어원, 칡과 등나무

강현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셨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풀지 못해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주인공 중 하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서로 이리저리 뒤엉켜있는 등나무입니다. 덩굴식물로 다른 식물이나 기둥 같은 곳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봄(5월)에는 초록색 잎 사이로 주렁주렁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등나무는 갈등이라는 단어에서 '등'입니다. 그렇다면 '갈'은 어떤 식물일까요? 바로 여름(8월)에 빨간 꽃을 피우는 칡입니다. 칡 갈(葛)에 등나무 등(藤)을 써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두 식물이 왜 단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바로 감는 방향 때문입니다. 둘 다 덩굴식물이지만, 등나무는 시계방향으로, 칡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풀 수 없게 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등나무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나무와 칡(예시)

이러한 모습을 인간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등나무가 있는 이곳에는 칡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나 자신과의 갈등이 있다면 이곳에서 갈등을 풀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7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이끼

강현지

숲에 오면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끼라는 식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축축'하고 '푹신푹신'하지요. 이끼는 물기가 많은 곳에 나는 푸른 때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차츰 지금과 같이 바위와 나무 등에 붙어 자라는 식물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원시적인 식물인 이끼는 물에서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육상 식물입니다. 그래서 계곡의 바위나 습지의 가장자리 축축한 숲 바닥 등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끼는 화려한 꽃도 달콤한 과실도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숲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사람의 활동으로 훼손된 곳에 가장 먼저 정착해서 다른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비가 내리면 자기 몸무게의 5배까지 빗물을 저장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겉흙이 빗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끼는 달팽이, 거미 등 수많은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새들은 이끼를 모아 둥지에 작은 구멍을 막고 폭신한 이불을 깝니다.


이끼

이처럼 이끼는 숲이 없는 곳에 숲을 만들고, 숲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생물들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끼의 꽃말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이끼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8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만나

양승희

마을 입구에 심어
정자목으로 사용했던 3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팽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곳 화양구곡 주변을 따라가면 아름드리 큰 느티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의 어원은 느리다. 늦다의 '느지'에서 온 말인데 느지는 상서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영목, 규목, 괴목, 신목, 귀봉, 귀환나무, 느끼낭, 굴목낭, 굴무기 등으로 불리고 늘상 티가 나서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느리게 자라지만 오래 사는 느티나무는 마을과 숲을 지키는 수호목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명이 보통 400~5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64그루가 있고 그중 25그루가 느티나무인데, 그 25그루 중 13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넘은 노거수 절반 정도가 느티나무인 것을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마을의 보호수 역할을 하며 우리 곁에 있던 나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그늘막이 커서 쉼터가 되고 느티나무 아래 정자는 마을 훈장님께서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토테미즘의 신앙이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많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예로부터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으며 느티나무를 베면 실제로 재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읍의 금동느티나무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나라의 중대사마다 피같은 액체를 흘리고 강화의 정족산성 안 느티나무는 병인양요 전야에 밤새워 울었고, 경술국치에는 그 울음소리가 강화성 안까지 들렸다고 하여 운나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느티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여기고 신라시대부터 벌채를 금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많고, 전국 곳곳에서 마을마다 사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단풍 또한 매력적이고 결이 고와서 9월의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느티나무는 광택이 아름답고 재질이 강하고 질겨서 뒤틀리지 않아 농기구나 가구 및 건축재료로 쓰이고, 억센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의미하고 고른 잔가지는 조화된 질서, 단정한 잎들은 예의를 뜻한다고 하여 충, 효, 예의 나무라하고, 양반나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논어1편] 느티나무의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되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의 사귐에 있어 신의를 다했는가?
배움에 있어 전해들은 바를 올바로 익히고 실천했는가?

여러분과 느티나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도 해설을 할 때마다 느티나무의 삶을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템포 쉬어가면서 나를 찾는 여유를 찾고, 따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 느티나무처럼 내면의 인격을 더 쌓아 아름답고 더 배려하는 삶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19

여름을 깨우는 소리, 매미소리

이천순

여름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의 아침잠을 깨우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매미입니다. 아직은 매미의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니지만, 곧 여름이 시작되면 매미들은 우렁차게 울어댈 것입니다. 지금은 땅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죠.

매미는 종류에 따라 2년에서 7년, 길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삽니다. 애벌레로 나무뿌리의 진액을 섭취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해질녘 즈음 땅 위로 올라와 풀잎이나 나무 수피에 기어올라 우화[3] 하기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우화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며 우화가 끝난 애벌레는 날개가 달린 멋진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매미우화

우화를 끝내고도 3~5일 정도 지나야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매미는 수컷 매미인데, 수컷 매미가 이렇게 열심히 우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입니다. 수컷 매미는 배 쪽에 있는 V자 모양의 발음근이 진동판을 진동시키면 몸속의 빈공간이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보통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겪었던 매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매미들은 밤에도 우렁차게 울며 우리의 숙면을 방해했으니까요. 왜일까요? 그렇다면 숲에 사는 매미와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사는 매미가 종류가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매미가 이 매미입니다. 그럼 어째서 낮에 운다는 매미가 밤에도 울게 되었을까요?

[3] 우화 : 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을 뜻함

"매미는 종류에 따라 2년에서 7년,
길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삽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의 가로등, 간판 불빛 등으로 밝아진 밤을 낮과 똑같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밝은 도시의 불빛은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일종의 빛공해인데, 곤충인 매미에게도 쉬는 시간 없이 자신을 울게 하는 공해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미는 보통 7일에서 15일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서 기다려온 시간이지만, 살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미에게는 건강하게 자신의 자손을 번식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매미가 유충으로 살아야하는 땅은 언제 사람으로 인해 파헤쳐질지 모르고, 성충으로 살면서 번식에 집중하기엔 어려운 상황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지매미 *Graptopsaltria nigrofuscata*



참매미 *Oncotympana fuscata*

매미가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지고, 소리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곤충도 소중하게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할 숲의 구성원입니다. 매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척이나 많고 방법은 쉽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자연을 지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천천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삶, 갈겨니와 피라미

추인식

속리산의 맑은 계곡과 냇물 속엔
친숙한 토종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피라미, 갈겨니, 납자루, 모래무지와 같은 물고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흔히 우리는 작은 물고기를 통틀어 피라미라고 부르는데 사실 피라미는 특정한 물고기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피라미와 갈겨니의 생태적 특징을 알아보고 서로 간의 공유와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고 그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 하천, 호수, 강과 같은 민물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피라미는 민물 생태계의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곡 속 작은 물고기들을 피라미라고 통칭하는 것이 거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겨니 *Nipponocypris temminckii*



피라미 *Zacco platypus* | 출처 | 두산백과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피라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들고, 피라미 만큼이나 우리나라 계곡에 많이 사는 물고기, 바로 갈겨니입니다. 두 물고기는 언뜻 보기엔 아주 비슷하여 구분이 힘든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줄무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고기의 줄무늬는 어떤 방향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옆에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워서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머리, 아가미 쪽을 위로 두고, 꼬리 부분을 아래로 두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보았을 때 가로로 줄이 있으면 피라미, 세로로 줄이 있으면 갈겨니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먹이 생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민물에서 번성하는 물고기답게 수생곤충, 플랑크톤, 유기물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 치우는 녀석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거나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물고기이지요. 반면에 갈겨니는 아주 심한 편식쟁이로 물속에 살고 있는 작은 수생곤충만을 먹는 물고기입니다.

아마 이러한 먹이 생활의 차이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피라미가 갈겨니보다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물고기가 같이 산다면 먹이가 한정된 갈겨니에겐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피라미와 갈겨니는 대부분의 물속에서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라미의 양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갈겨니와 같은 물속에 살고 있는 피라미들을 채집해 위를 조사해보면 수생곤충을 제외한 다른 먹이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점이 바로 피라미와 갈겨니가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갈겨니를 위해 피라미가 먹이를 양보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피라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먹이 중 한 가지만을 양보하는 사소한 일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겨니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피라미와 이를 두고 경쟁한다면 두 무리 모두 이처럼 번성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라미의 양보로 두 물고기가 서로 번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물속 생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덕분에 피라미 또한 갈겨니와 같이 살아가며 더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은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손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됩니다. 오늘 갈겨니와 피라미가 공존하는 수중 생활을 알아보았는데, 인간과 자연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공존의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21
숲속의 드러머 딱따구리

지아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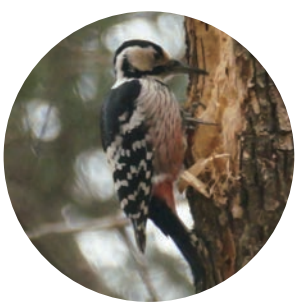
50

숲속을 걷다보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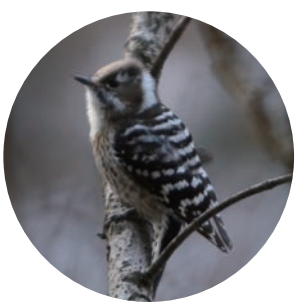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숲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새들 중 딱따구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곳 속리산에서 만날 수 있는 딱따구리는 청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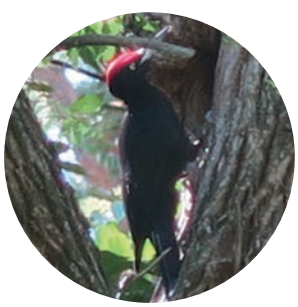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leucotos



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major



쇠딱따구리
Dendrocopos kizuki



까막딱따구리
Dryocopus martius (Linnaeus, 1758)



청딱따구리
Picus canus

특히 까막딱따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쉽게 만나기 어려운 새입니다.
까막딱따구리는 오래되고 잘 보전된 숲에서만 살아가기에 까막딱따구리가 살고 있는 속리산은 잘 보전된 건강한 숲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둥지를 만들 수 있는 키가 크고 지름이 넓은 나무가 많은 숲을 좋아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번식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딱따구리는 둥지를 만들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장소를 고르고 정성을 다해 나무를 파서 만듭니다. 죽은 나무나 속이 무른 나무, 20cm 이상의 지름을 가진 나무, 비나 눈을 막기 위해 나무의 휘어진 안쪽이나 나뭇가지 바로 아래인지 등을 따져서 장소를 정합니다.
딱따구리에게는 2종류의 둥지가 있는데, 잠을 자는 둥지와 번식을 하는 둥지입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을 갖춘 둥지는 번식 둥지를 말하는 것이며, 장소를 정해서 나무 속을 크고 깊게 파기 때문에 보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둥지를 만듭니다. 잠만 자는 둥지는 3일 정도면 뚝딱 만들어 내는 것에 비해 아주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국토의 70% 정도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도 딱따구리가 안정적으로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숲은 많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죽은 나무를 제거하면서 딱따구리가 번식할 둥지를 만들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따구리가 둥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그 둥지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던 다른 야생 동물들도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딱따구리의 번식 둥지는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는 최고급 호텔방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이 번식 둥지를 차지하기 위한 동물들끼리의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숲을 관리하기 위해 죽은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거나 치워 없애게 되면 딱따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도 그만큼 사라지게 되겠죠.
자연이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와 같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숲에서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딱따구리들을 위해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고, 보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딱따구리 성장놀이

놀이를 하는 이유

49일간 직접 딱따구리의 성장을 관찰한 김성호 교수의「까막딱따구리 숲」도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딱따구리의 습성과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까막딱따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텃새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



[놀이 준비 재료]
딱따구리 성장 놀이판, 딱따구리 머리띠, 주사위

[사전 준비 사항]
1. 놀이판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대형 놀이판과 말을 올려서 하는 소형 놀이판이 있으며 놀이 장소와 기상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한다.
2. 딱따구리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것에 대해 먼저 해설을 하고 놀이를 진행한다.
3. 위 사진의 성장 놀이판 노란 표시처럼 이동하며, 중간의 뱀모양은 다시 돌아오는 것,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는 것 등 진행 방법을 설명한다.

놀이 방법



1
팀을 나누어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한다.

[주의사항]
아이들이 직접 놀이판에 올라갈 때는 딱따구리 머리띠를 사용하며,
소형 놀이판일 때는 머리띠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사용한다.



2
가위바위보로 정한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만큼 놀이판에서 이동한다.

[주의사항]
진행자는 놀이판에 알맞게 서있는지 확인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3
놀이판에 적힌 내용을 아이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새들의 번식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의사항]
진행자는 놀이판에 알맞게 서있는지 확인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4
먼저 성공으로 나오는 팀이 승리한다.

[주의사항]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지 않고 놀이를 통해
딱따구리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22

우리나라 수생 생태계의 1인자 수달

강현지

우리나라 숲에서 최고의 사냥꾼은 어느 동물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이었지만 그들이 멸종된 지금은 담비, 수달, 삵 등이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민물 생태계의 1인자이며 조절자 역할을 하는 수달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는 화양구곡과 세조길 저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밤에 먹이를 찾기 좋은 밝은 눈과 민감한 수염을 가졌습니다. 몸은 헤엄치기 좋은 유선형이고 먹이는 물고기와 개구리 등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구하기 쉬운 것을 가리지 않고 먹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크고 비늘이 적은 물고기입니다. 수달은 큰입배스가 우리나라 민물 생태계를 위협할 때 훌륭한 사냥능력으로 배스 퇴치에 앞장선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수달은 추운 겨울에 물속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아주 촘촘한 털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달이 물속에 들어가면 긴 겉털이 누우면서 짧고 아주 부드러운 속털을 덮어줍니다. 그 덕분에 방수도 되고 피부가 거의 물에 젖지 않아 보온도 됩니다.
추위로부터 수달을 보호해주는 털가죽은 사람도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을 '갖옷'이라 불렀는데 그중에서도 수달과 담비의 가죽은 최고급의 재료로, 이것으로 만든 옷을 따로 떼어 '초구'라고 불렀습니다. 갖옷과 이엄 등 가죽으로 만든 옷과 모자는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자주 논란이 되었으나 남녀와 귀천의 구별 없이 모두가 가지기를 원해서 없애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달과 담비 사냥이 지나치게 성행하였습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 지정된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 일화로 조선시대 황희 정승과 수달이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황희 정승이 잘 아는 유능한 젊은이를 함경도 종성부사로 영전[4] 시켜 보냈다고 합니다. 신임 부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황희의 검소한 성품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수수한 무명 이불보 속에 함경도 종성 지방의 특산품인 수달 가죽으로 속을 삼은 이불을 선물했습니다. 황희 정승은 수수한 무명이불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무명이불 답지 않게 너무 따뜻해서 속을 뜯어보았습니다. 수달 가죽을 본 황희 정승은 즉시 그 젊은이를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황희 정승은 왜 그를 파면시켰을까요? 파면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부인에게 황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의는 알지만 내가 수달피 이불을 선물 받은 것이 알려지면 내 체면도 체면이려니와, 종성 지방의 수달이 진상품으로 마구 잡혀 씨가 마를 것입니다. 내가 그를 종성부사로 추천한 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나라에 공헌하라는 뜻이니 굳이 나에게 선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로 이만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잘못 보았던 것이오."

황희 정승의 생각대로 가죽을 탐낸 사람들 때문에 수달은 계속 남획되었고 연산군 때는 한 번에 사들이는 숫자가 수달 가죽 300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달은 밀렵, 먹이 감소, 서식지 파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수달과 같이 물고기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사라진다면 자연 생태계는 완전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달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달 *Lutra lutra*

[4] 영전 :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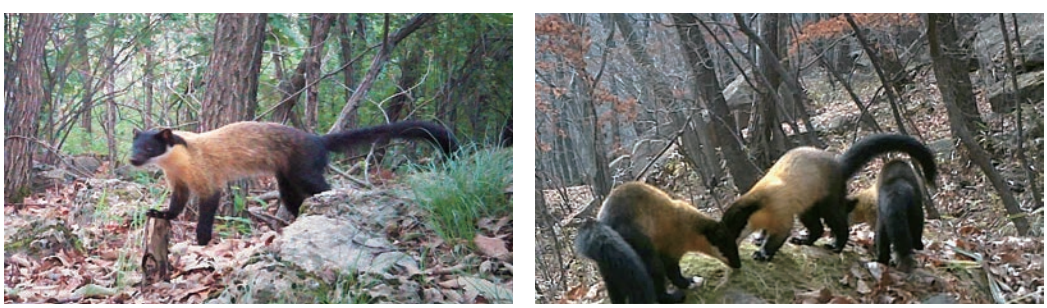
귀여운 얼굴의 포식자, 담비!

윤태현

우리나라 자연 속 최상위 포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동물이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일지 아시나요?

우리 문화 속 민화나 벽화 및 건국설화, 심지어 88올림픽 마스코트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호랑이 또는 백두산호랑이라고 불리는 아종[5]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도 호랑이가 살고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 사업으로 조선총독부에서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현재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원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전설의 동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자연에서 살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담비라는 동물입니다. 담비는 족제비과 동물로 족제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족제비보다 몸집이 다소 크고 털색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제비는 얼굴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가 적갈색을 띄는 반면, 담비는 얼굴과 다리, 꼬리가 검은색을 띄고 몸통에 비해 꼬리가 긴 모습입니다.



담비 *Martes flavigula*

[5]아종 : 생물 종(種)을 다시 세분한 생물 분류 단위. 종의 바로 아래이다. 종으로 독립할 만큼 다르지는 않지만, 모습이 다르고, 사는 곳이 차이 나는, 한 무리의 생물에 쓴다.

"담비는 현재 대형 포식자가 멸종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담비는 현재 호랑이와 같은 대형 포식자가 멸종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족제비가 개구리나 새, 쥐, 토끼와 같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을 먹이로 하는 반면 담비는 2~3마리가 무리지어 고라니, 멧돼지와 같이 몸집이 큰 포유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나 늑대가 사라진 이후 담비가 거의 유일하게 고라니 개체군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담비가 한 해 사냥하는 고라니와 멧돼지가 약 1만마리 정도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엽사를 동원해 퇴치하는 고라니, 멧돼지 숫자와 견주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비에게도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루에 2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담비는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숲이 단절되 고립되어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담비는 주로 낮에 활동하며 산림의 능선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등산객 등 사람들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겹치는데 백두대간을 걷는 등산객이 늘면서 담비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담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조절자 역할을 하는 담비가 이러한 이유로 멸종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셨나요?

정답을 러시아의 해달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 극동지역에 서식하는 족제비과 해달을 사냥했는데요, 30만 마리였던 해달이 90년대 초반에는 900마리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해달은 주로 성게를 먹이로 하는데 성게는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을 먹고 살죠. 해달의 개체수가 줄면서 성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로 이해 해조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바닷속이 사막화되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남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 숲에서 담비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2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죽은 나무

신재형

국립공원에 오면 죽은 나무, 썩어가는 나무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죽은 나무들을 치우기 않고 그대로 둔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한다더니 왜 죽은 나무를 그대로 뒀을까? 안 보이는 저 멀리 치워놔도 될 것을 굳이 여기 그냥 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들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과연 죽은 나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죽어서 썩어가는 나무는 살아 있는 나무만큼이나 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면 곤충이나 버섯과 같은 곰팡이가 나타나 나무가 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에 남아 있던 영양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나무가 죽은 자리에는 다시 건강하고 푸르른 새 생명이 움트겠지요? 이렇게 죽은 나무도 자연 속에서는 모두 쓸모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숲에서 죽어 썩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의식주 중 '식(食)'을 해결하기 위해 죽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려고 숲에서 가져간다면 말입니다. 일단 죽은 나무를 썩히고 그 안의 영양분을 먹던 많은 곤충들과 곰팡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곤충과 버섯 등을 먹는 작은 동물과 새들이 굶어 죽게 되겠죠. 작은 동물이나 새를 잡아먹고 사는 덩치가 큰 동물들도 배를 곯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숲에서 단 하나의 구성원만 사라지더라도 그 숲은 쉽게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앞에 놓인 바위도, 흐르는 계곡의 물도, 크고 작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눈에 쉽게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숲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숲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죽은 나무가 가지는 숲에서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숲 살리기 놀이

놀이를 하는 이유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문제를 놀이를 통해 배워본다. 서식지 단편화란 도로나 택지, 토목 공사 등으로 인해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분단, 단절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없어 특정 생물이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각 국립공원의 깃대종을 이용한 놀이를 통하여 쉽게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사전 준비 사항



[놀이 준비 재료]
숲 타공판, 빙고판, 주사위, 국립공원 깃대종,
빙고판 말, 초록 막대, 빨간 막대, 황금열쇠 쿠폰



[사전 준비 사항]
초록 막대를 타공판에 끼우고 국립공원 깃대종을 걸어둔다.

놀이 방법



1
팀을 나누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주사위를 던진다.



2
가위바위보 순서에 따라 주사위를 던저 빙고판의 말을 옮기면서 게임을 한다.

[주의사항]
빙고판에 적힌 내용을 함께 이해하며 숲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빙고판에서 초록색은 타공판에 초록 막대(나무)를 심는 것이다.

[주의사항]
빙고판에 적힌 내용을 함께 이해하며 숲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빙고판에서 빨간색은 타공판에 초록 막대(나무)를 빼는 것이다.

[주의사항]
더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은 산불의 표현이다. 빨간 막대를 꽂는 것이다.

천연비누 체험

체험을 하는 이유

천연비누는 천연유지(팜유, 야자유)를 원료로 해서 만든 고체 베이스에 색을 낼 수 있는 천연가루와 향을 내는 아로마오일을 첨가하여 만듭니다.
천연비누는 물에서 생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키기 않아 생활 속에서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

[체험 준비 재료]



핫플레이트, 도마, 칼, 비누베이스, 비누틀, 비커, 종이컵, 막대, 천연색소, 알코올, 천연 아로마오일, 살구씨오일, 식물성 글리세린, 포장지

1. 핫플레이트-고체 비누베이스를 액체로 변환(가열)
2. 도마, 칼, 비커-비누베이스를 녹이기 좋은 크기로 자름
3. 종이컵, 막대-액체 베이스를 소분하여 색소와 아로마오일을 넣고 젓기 위함
4. 천연색소-비누에 색을 냄
5. 천연 아로마오일 –좋은 냄새(향기)를 냄
6. 식물성 글리세린-보습효과
7. 살구씨오일-비누를 부드럽게 해줌(여름에는 사용하지 않음-비누가 물러짐)

[사전 준비 사항]



1. 비누베이스를 잘라 비커에 담는다.



2. 핫플레이트에 올려 비누베이스를 녹인다.

체험 순서



1
녹은 비누베이스를 컵에 붓고 천연 아로마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 섞어준다.

[주의사항]
너무 오래 섞으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섞어 준다.



2
종이컵에 천연색소, 식물성 글리세린, 살구씨오일을 넣고 잘 섞어준다.

[주의사항]
살구씨오일은 한두 방울 정도 아주 소량만 넣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준다.



3
잘 섞은 비누베이스를 비누틀에 부어서 굳힌다.

[주의사항]
계절이나 날씨, 기온에 따라 굳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ex) 겨울 - 1~2시간, 여름 - 3~4시간
비누 크기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4
완성

천연염색 체험

체험을 하는 이유

옛날 사람들은 입고 먹고 잘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천연염색으로 천을 염색하면 질겨져 마모에 강해지고, 색을 입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천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염료(치자, 소목, 쑥, 꼭두서니, 홍화 등)나 동물성 염료, 광물성 염료(오배자, 연지벌레, 오징어, 재, 황토 등)들로 천을 염색하여 천연의 재료로 아름다운 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 화학염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

[체험 준비 재료]



버너, 대야, 치자(염색재료), 줄, 가재손수건, 빨래줄, 빨래집게

[사전 준비 사항]



1. 체험에 사용하지 않을 여분의 가재손수건에 치자를 넣고 감싼다.



2. 대야에 넣고 염색물이 우러나도록 버너에 올려 20분정도 끓인 후 식힌다.

체험 순서



1
무늬를 내기 위해 손수건을 접거나 줄로 묶는다.

[주의사항]
모양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줄을 강하게 묶어야 한다.



2
염색물에 손수건을 담가서 색을 낸다.

[주의사항]
옷에 염색물이 튈 수 있으니 대야 안에서 물을 꼭 짜고 털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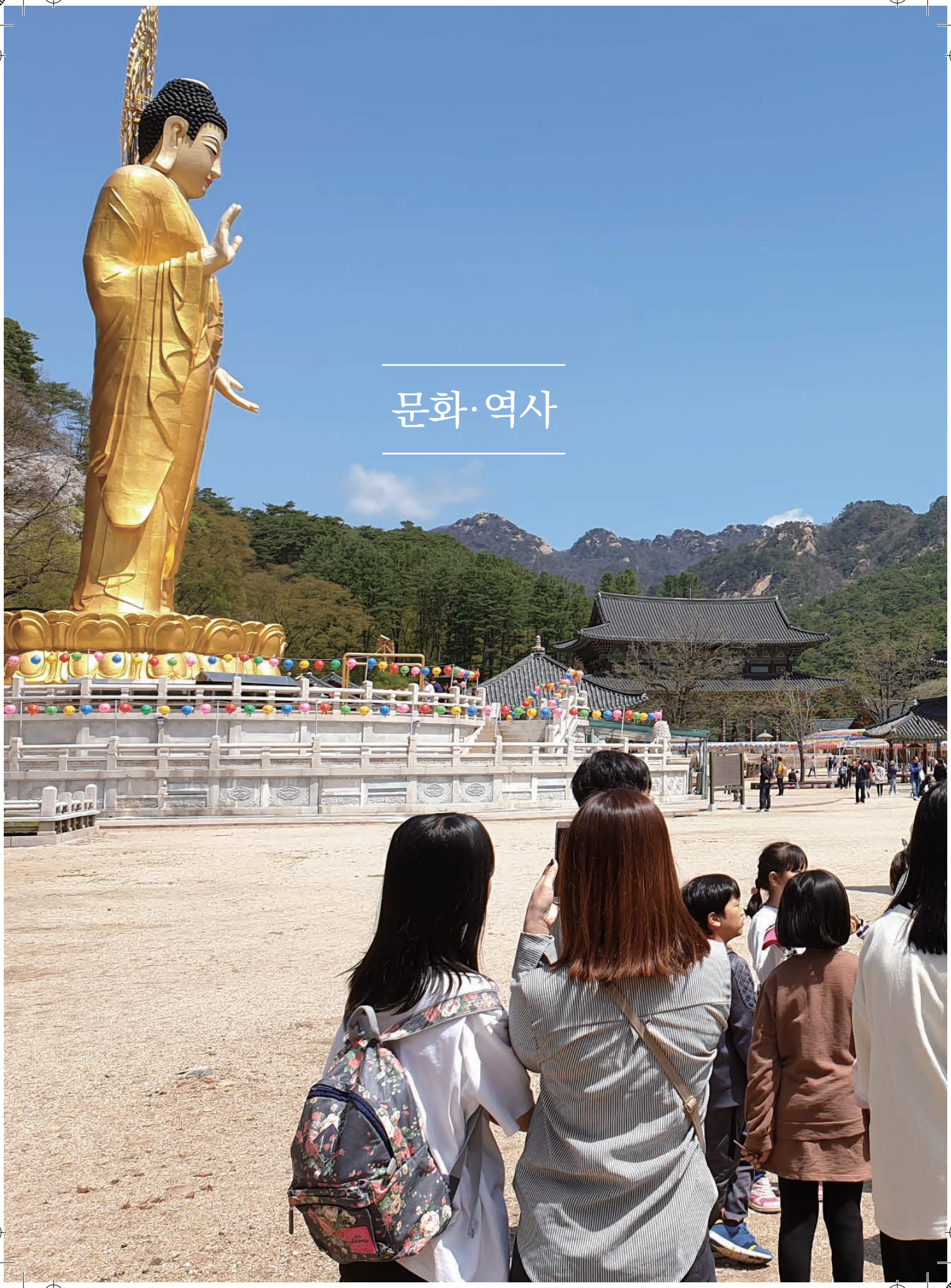


3
염색된 수건을 줄에 널어 말린다.

[주의사항]
여러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본인 것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완성



문화·역사


HEERFUL
SPORT

25
속리산과 비석이야기

추인식

‘남산’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예로부터 마을이나 건물의 앞쪽을 남쪽이라 하고 뒤쪽을 북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산을 남(南)산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도 법주사의 앞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불에 활활 타고 있는, 화기를 머금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이러한 불기운을 막기 위해 부적과 같은 장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비석 뒤쪽에 있는 문자가 그것 입니다. 불 "화(火)“자와 새둥지 "소(巢)”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불기운이 이 비석 주변에만 머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이 비석의 앞쪽을 한번 볼까요?

하마비(下馬碑)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석 앞(하마비)



비석 뒤(화소)

하마비는 '여기서부터 말에서 내리라'는 의미로써 조선의 명종이 내린 비석이라고 합니다. 명종의 어머니이자 조선의 여걸이었던 문정왕후는 불교를 믿던 왕족으로 유명합니다. 조선은 아시다시피 고려 말 불교의 타락을 경계하여 국시로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조선이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신앙으로써 불교를 꾸준히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왕실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특히 왕실의 여인들 중 불교에 심취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정왕후는 특히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고 합니다. 보우라는 스님을 발탁하여 잠시 불교를 중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의 사찰(寺刹)중에는 능침사라 하여 왕릉 근처에 설치한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능침사는 왕실의 불사를 담당하는 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릉의 보호와 수리, 왕릉의 제수 공급 등 다양한 역할을 하던 사찰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유생들이 이 능침사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사찰의 보물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문정왕후가 이들에게 벌을 주고자 하니, 많은 선비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문정왕후는 함부로 이들이 사찰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전국에 있는 20여 곳의 큰 사찰에 하마비를 세워 유생들의 침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잠시 반짝했던 조선의 불교는 문정왕후의 사망 후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당시에 발탁되었던 스님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많은 활약을 하여 호국불교로써 불교는 이어지게 되지만, 많은 사찰들이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하마비는 대부분 사라지고 법주사의 하마비를 포함하여 약 3~4개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하마비는 우리에게 이런 지난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법주사 입구에는 하마비 외에도 몇 개의 비석이 더 있는데요, 이를 둘러보고 이야기를 알아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6

법주사의 시작!
일주문

양승희

우리나라의 사찰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사찰의 주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법주사는 세 개의 문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팔상전을 불이문(不二門)으로 보아 법주사에는 총 네 개의 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 첫 번째 문인 일주문입니다. 기둥을 하나 일(一)자 모양으로 배치하여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속세가 아닌 부처의 세상이니 잡념을 버리고 일심(一心)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주문

일주문에는 현판이 앞뒤로 두 개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현판에는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호수 서쪽에서 제일 가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삼한시대 때의 3대 저수지[1] 중 하나인 제천의 의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법주사에는 건물만 60채가 넘었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인조를 구출하기 위해 의병을 조직해 이곳에서 출발한 승병의 수가 3천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크고 번성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현판에는 다른 산사에서도 볼 수 있는 OO산OO절의 형식으로 '속리산대대법주사(俗離山大大法住寺)'라고 적혀있습니다. 대(大)자 하나로는 법주사의 번성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대(大)자를 두 개 써서 그 정도를 표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27
금강역사가 지키는 금강문

강현지

법주사의 두 번째 문인 금강문입니다.
금강문이라는 이름은 금강역사가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금강문

금강문은 우리나라 전통의 사찰 건축 양식 중 하나이지만 사찰의 규모가 작으면 쉽게 생략됩니다. 대신 일주문의 기둥에 금강역사를 그려넣곤 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서 인지 오래된 전통사찰 중에도 금강문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드물다고 합니다. 법주사 금강문 안에는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 두 분의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혜를 뜻하는 사자 등을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실천을 뜻하는 흰코끼리 등을 타고 있는 보현보살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역사는 불법을 훼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사찰에 들어오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치는 호법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강역사 중에 입을 벌리고 금강저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밀적금강을 왼쪽에,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연금강을 오른쪽에 모시는데 이를 각각 “아금강역사”과 “훔금강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인도어인 범어의 첫째 글자인 “아”와 마지막 글자인 “훔”을 표현한 것으로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과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법주사 금강문의 금강역사들은 두 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법주사가 아주 번성했던 시절, 한 마디씩만 떠들어도 시끄러웠기에 이 문을 지나 법주사 안으로 들어오면 조용히 하라 라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28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천왕문

지아람

법주사의 세 번째 문인 사천왕문입니다.

법주사의 사천왕문은 신라 진흥왕 13년(553년)에 처음 지어졌고 여러 번 다시 지었습니다. 현재 임진왜란 당시 불타 소실된 것을 벽암대사가 다시 중건한 것입니다.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지어진 법주사 사천왕문은 우리나라 최고 크기의 천왕문입니다. 사천왕문 안에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사천왕은 인도에서 귀신을 관장하던 왕들인데 불교에 귀의해서 불법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

사천왕은 불교에서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수미산 중턱에서 살며 동서남북을 지킨다고 합니다. 동쪽을 지키는 신은 지국천왕으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쪽을 지키는 신은 증장천왕으로 여의주와 용을 들고 있고,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은 탑과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천왕은 때에 따라 인간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문을 지날 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법주사 사천왕문의 사천왕상은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진흙을 발라 만든 소조상으로 국내 최대 크기의 소조 사천왕상입니다. 사천왕문은 금강문과는 달리 그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흙이라는 소재 특성상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기에 식물의 씨앗을 옮길 수 있는 새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팔상전 풍경

29
신라와 백제의 만남
석련지

추인식

대한민국 국보 제64호 법주사 석련지입니다.

'돌로 만든 연꽃 모양의 연못'이라는 이름처럼 단단한 화강암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하여 만들어진 석련지는, 법주사에 없는 연못의 역할을 하던 유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찰에는 연못을 하나 파 두게 됩니다. 이 연못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꽃인 연꽃을 심고, 또한 방화수를 담아두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찰에서 발생하던 생활하수를 모아 정화하던 정화조의 기능 또한 사찰의 연못이 수행하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찰에 있어서 연못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법주사에는 특이하게도 연못이 없습니다. 사찰 바로 앞으로 계곡이 지나는 관계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법주사의 풍수지리학적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은 법주사 석련지
(국보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0호)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곳 법주사의 지형은 물에 떠있는 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 떠있는 배에 바닥을 뚫어 구멍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차오르고 배는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법주사는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드는 대신 돌을 조각하여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유물이 수정교와 금강문 사이에 있는 돌기둥입니다. '노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물인데요, 예전에는 저 기둥에 항상 밧줄을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배가 물에 떠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는 둥둥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배가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묶어야 되겠지요? 바로 그 역할을 하던 유물입니다.

이 석련지는 8세기 통일신라 시기의 작품으로 그 예술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석련지 유물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석련지는 단순히 예술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법주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사찰로, 보은 땅은 신라 최고의 석성이었던 삼년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김유신의 5만 군사가 훈련한 곳이 바로 삼년산성입니다. 즉 법주사는 신라와 백제가 다투던 최전선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석련지처럼 돌로 만든 그릇 형태의 유물은 '석조(石槽)유물'이라고 합니다. 석조는 전형적인 신라 석조로 군더더기 없는 사각형 형태입니다. 석련지와 같은 둥근 형태는 바로 백제식의 석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석련지가 과거 백제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신라가 만든 백제식의 유물인 법주사 석련지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백제의 백성과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의 나라, 통일왕조가 되었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신라식의 양식과 합쳐져 더욱 발전된 형태로 계승된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30

우리나라 유일의 5층 목조탑
팔상전

김지혜

법주사의 중심에는 국보 제55호로 지정된
팔상전이 있습니다.

법주사에는 여느 절과 다르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석탑입니다. 연못을 대신하여 국보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련지가 있고, 석탑을 대신해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목탑, 바로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팔상전이라는 이름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라는 여덟 폭의 그림이 모셔져 있는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팔상전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나무로 만든 탑신부는 불에 타서 사라지고 돌로 만든 기단부만 남게 됩니다. 지금의 팔상전은 전쟁 직후 사명당 대사와 벽암 선사 등이 20여 년에 걸쳐 다시 지은 것입니다. 1968년에 팔상전을 해체·수리하면서 중심기둥을 받치는 심초석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5층 목조 건물이지만 안에서 보면 3층까지 열려 있는 통층식 구조입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55호)

팔상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구한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연등을 들고 부처의 큰 뜻과 공덕을 노래하고 극락왕생과 각자의 소원을 비는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가 재연됩니다.

31
통일신라 석등 예술의 정점! 쌍사자 석등

양승희

국보 제5호로 지정된 쌍사자 석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쌍사자 석등은 우리가 국사책이나 방송에서 자주 보는 바로 그 쌍사자 석등입니다. 등은 부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에 널리 퍼지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석등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자 조각 석등 중 예술적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며, 석등에 조각된 사자는 인도에서는 지혜,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의 사자 두 마리는 딱 한 군데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입모양입니다. 한 사자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 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교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이 두 사자는 수행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자는 참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는 염불하는 것을 의미하여 참선을 하던, 염불을 하던 꾸준히 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국보 제5호)

이렇게 불교에서는 조각 하나에도 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32
법주사 미륵대불의 변천사

윤태현

78

여러분은 법주사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법주사하면 딱 떠오르는 법주사의 랜드마크, '금동미륵대불입상'일 것입니다. 높이가 33m나 되어 법주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황금빛의 미륵대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법주사는 본래 미륵불의 도량으로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중창하면서 이 자리에 청동으로 만든 높이 약 5m의 미륵장륙상이 있었습니다.


석조미륵대불


청동미륵대불


금동미륵대불

그 후 한참의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고종임금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경복궁을 중건할 때 당백전이라는 고가의 화폐를 주조하게 되는데, 이 당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던 시기라 그 구리를 구하기 위해 사찰에 있는 구리란 구리는 모두 징발해갔고, 그 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미륵장륙상도 징발되어 한참동안 휑하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39년 근대미술조각가인 김복진 선생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시멘트로 미륵불을 조성하시다 돌아가시고, 다시 시간이 흘러 1963년 박정희 최고의장의 후원을 받아 1964년 시멘트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불상은 쉽게 부식이 되어 1986년에 시멘트불을 헐고 약 100여 톤의 구리가 들어간 청동불로 1990년에 완성하였고, 청동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약 80kg의 금으로 개금처리한 것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금동미륵대불입상입니다.

한 때는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었으나 93년 홍콩 보련선사의 천단대불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비록 문화재로 인정받는 미륵불은 아니지만, 미륵대불 모습의 변천사에 따라 세월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흥미로운 청동불상입니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 변해온 미륵불을 알면 6~80대 선생님들의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의 추억을 찾아볼 수 있죠.

이처럼 문화재도 아닌 그냥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빛나 보이기만 했던 이 조형물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만큼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처럼 지금 느끼시는 점은 다를 것입니다. 법주사에는 문화재가 아닐지라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강현지

수정봉 아래 있는 이 전각은 능인전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며 불타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때 벽암대사가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능인전에서 능인이란 석가모니를 뜻하는 것으로 이 전각은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보은 법주사 능인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2호)



보은 법주사 능인전 내부

전각 안에는 석가모니불과 함께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16나한상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석가모니불 뒤로 창문이 뚫려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법주사 세존사리탑입니다.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법주사전경도〉를 보면 능인전을 사리각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사리각을 또 다른 말로는 적멸보궁이라고 하는데 적멸이란 열반이라는 뜻이고, 보궁이란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열반이 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법주사전경도

그렇다면 이 능인전에는 그 귀하다는 부처의 사리를 정말로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5대 적멸보궁에서 속리산 법주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5대 적멸보궁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 유학 중 문수보살을 만나 석가모니의 사리를 받아서 우리나라 사찰 5곳에 나누어 모셔둔 곳입니다.

5대 적멸보궁에 속하는 사찰은 양산 영축산의 통도사, 평창 오대산의 상원사, 영월 사자산의 법흥사, 정선 태백산의 정암사, 인제 설악산의 봉정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의 법주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이 능인전은 어째서 세존사리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보은 법주사 세존사리탑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

〈고려사〉에 의하면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의 2차 침공으로 공민왕이 복주 즉 지금의 안동으로 파천[2] 하게 되었습니다. 홍건적은 개경을 함락하고 2달 동안 주둔했는데 이듬해 군을 재정비한 고려가 홍건적을 물리쳤지만 개경은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민왕은 개경을 복구하기 전까지 청주에 머물렀는데 공민왕 11년 8월 정해일에 '속리사(俗離寺)에 행차해 통도사(通度寺)에 간직해 두었던 부처의 뼈와 사리 및 가사(袈裟)를 가져다가 구경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주사의 사리각, 능인전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되었고, 창문 너머의 세존사리탑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 천오백 년의 세월을 거쳐 온 법주사에는 우리 눈에 닿는 곳곳에 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보시면 이곳의 보물들이 지닌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느리게 탐방하는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파천 :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하던 일

34

불교 유적지에서 만나는 유교식 건축, 선희궁 원당

추인식



보은 법주사 선희궁 원당
(충청북도 유형문화제 제233호)

앞에 보이는 전각은 선희궁 원당이라고 합니다.



솟을삼문

선희궁 원당은 조선 영조의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의 명복을 빌기 위한 법당으로, 전각에 담을 두르고 솟을삼문을 둔 전형적인 유교 사당의 모습을 한 건물입니다. 입구가 세 개로 나뉘어 있는 솟을삼문은 주로 종묘, 사당, 향교 등 유교식 제례를 지내는 공간의 출입문입니다. 이 솟을삼문의 나무 기둥을 보면 역시 법주사의 다른 건물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둥근 형태의 기둥을 한 다른 건물과는 달리 이곳의 기둥은 사각형으로 다듬어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둥근 기둥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기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동양의 전통 관념에 따라 둥근 기둥은 하늘인 왕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아닌 신하들은 사각의 기둥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 곳 선희궁 원당 또한 같은 이유로 사각 기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찰은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불교가 동양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양 문화권에는 '성인(聖人)'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황오제나 강태공, 공자 등이 바로 이런 동양의 성인입니다. 모두 시대를 이끈 사상가이거나 정치가로 지금까지 그 영향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동양의 성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나 제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자 또한 사후에 문선황제로 추종되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어 들어오면서 석가모니는 단순한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성인(聖人)의 개념으로써 전래되게 됩니다. 본래 왕자 출신이었던 석가모니이기에 더욱 동양의 성인 사상과 잘 맞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은 종교시설인 동시에 성인인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이었기에 불상은 황제의 색인 금색을 칠할 수 있었고,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보이는 기둥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5
소신공양을 행하다. 희견보살상

윤태현

원통보전 뒤편으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보물 제1417호)

사람이 머리에 향로를 얹은 것 같은 석조물이 보이시죠.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위에 향로와 맨아래 지대석을 제외한 판석과 몸 전체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희견보살상입니다. 자세히 상을 보시면 윤곽과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데요, 얼굴과 육체가 일부 으스러졌고 목덜미의 땜질을 비롯해 팔목, 발목 등에도 붕대를 두른듯 뭉개어져 있습니다. 일부 보수의 흔적을 제외한 곳은 세월에 풍화된 것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망신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우리는 '몸이 만신창이 되었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망신참'은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수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희견보살은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몸에 향과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사연으로 희견보살의 얼굴과 몸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단편소설 '등신불'처럼,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는 소신(燒身)공양을 통해 중생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자 했던 희견보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견보살상은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고,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독특하고 유일한 보살상으로 2004년에 보물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36

원하면 통하리라,
관세음보살의 원통보전

지아람

불교는 워낙 우리와 친숙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들 '부처'라든지 '보살'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말하고, 여기에는 미륵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등이 속합니다. 보살은 이 부처로 가는 단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지장보살, 문수보살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각에는 보살 중 가장 유명한 보살,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각과 이 전각에 모신 관세음보살상은 모두 보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원통대사이어서 이 전각의 이름은 원통보전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면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보물 제916호)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361호)

다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주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라는 건 빈다라는 뜻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빈다라는 뜻의 주문입니다. 아미타불은 사후세계 극락을 다스리는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은 현생, 현재에 나의 어려움을 구원해주는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통 손에 지물이라고 부르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데, 관세음보살은 연꽃을 들고 있으며 머리에 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를 믿는 나라 중 중국 영향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인데, 그 이유는 주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가진 보살입니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중생을 굽어 살피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눈과 손으로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살피려고 하는 것이 그 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관세음보살이 등류신이라는 것입니다. 등류신이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해주는 신이라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아이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부모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행하는 자비의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런 마음을 아는 중생이라면 당연히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관세음보살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닮아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그 분들을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닮아있습니다.

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내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보낸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들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37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조상을 모신 대웅보전

양승희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의 세 개의 문을 지나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불이문, 즉 팔상전을 지나면 드디어 이 절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전각 대웅보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보물 제915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물 제1360호)

대웅은 큰 영웅이라는 뜻으로 이는 석가모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모신 전각을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이라고 하는데, '보'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면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을 같이 모셔두는 것이고, 대웅보전이라고 하면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이 아닌 또 다른 부처를 모셔두는 것이 다릅니다.

법주사의 대웅보전은 약 19m에 달하는 거대한 목조건물로, 조선시대 때 건축된 2층 전각입니다. 이 전각과 안에 모신 소조상까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2층 건물로 보이지만 팔상전과 비슷하게 안에는 뚫려있는 통층식 건물이고, 이 안에 모셔져 있는 소조상,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조상입니다.

전각의 이름은 대웅보전이라 하지만 비로나자불을 가운데에 모시고 석가모니불과 노사나불을 양쪽에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는 수인이라고 하는 손모양으로 어떤 부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 계신 부처의 수인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부처의 수인을 볼까요?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인은 지권인라고 부르며 비로자나불의 수인입니다. 저희가 보는 방향 오른쪽에 모셔져 있는 부처의 수인을 볼까요? 양 손의 엄지, 검지를 맞대어 원을 만들고 한 손은 배꼽 앞으로 한 손은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있는 모습니다. 이 수인은 중생인이라 하고 아미타불의 수인입니다. 그럼 왼쪽에 모셔져 있는 부처의 수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왼손을 배꼽 앞으로 하고 손바닥을 위로, 오른손을 무릎에 두고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있습니다. 항마촉지인이라 부르는 석가모니의 수인입니다.

대웅전이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있음은 그것이 석가모니의 법회 모임, 즉 영산회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웅보전에는 1987년 전후로 제작된 후불탱화 다섯 점이 있습니다. 탱화는 티벳에서 불교그림을 탕카(thang ka)라고 해서 벽에 거는 그림을 뜻하는데, 그 말을 한문으로 뜻을 쓰고 우리말로 소리를 따서 읽은 것입니다. 탱화는 티벳에서 몽고를 거쳐 고려말경 원나라 불교로 전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불화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후불탱화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국불교의 한 특징입니다. 대웅전에서 다섯 점의 후불탱화를 비교하며 감상하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38
10지옥을 만나는 명부전

윤태현

다들 '신과함께' 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명부전

죄와벌, 인과연이라는 부제로 1,2편이 개봉했고 모두 천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던 웹툰 원작의 영화입니다. 1편 죄와벌의 내용은 저승법을 따라 49일간 7번의 재판을 거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각은 그 심판을 주재하는 10명의 재판관들을 모신 명부전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각자의 죄목에 따라 자신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데, 사람들의 죄가 적힌 명부에 따라 진행하고 사람에 따라 7~10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여부에 따라 아주 잔인한 벌을 받게 되는데, 10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옥 진관대왕의 도산지옥은 살면서 공덕을 쌓았는지를 심판하고, 2지옥 초강대왕의 화탕지옥은 사소한 죄를 지었는지를 심판하고, 3지옥 송제대왕의 한빙지옥은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았는가를 심판하고, 4지옥 오관대왕의 검수지옥은 몸으로 지은 3가지 죄와 입으로 지은 2가지 죄를 심판합니다. 5지옥 염라대왕의 발설지옥은 말로 지은 죄를 심판하고, 6지옥 변성대왕의 독사지옥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를 심판하고, 7지옥 태산대왕의 거해지옥은 남을 속여 이득을 취했는지를 심판합니다. 8지옥 평등대왕의 철상지옥은 부정하게 재물을 모았는지를 심판하고 9지옥 도시대왕의 풍도지옥은 바람을 피웠는지를 심판하고, 10지옥 전륜대왕의 흑암지옥은 자식을 낳지 않은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10지옥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한 큰 죄가 있으면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이라 해서 아비규환이라고도 합니다. 무간지옥은 억겁의 시간 동안 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겁(劫)이란 선녀가 돌산을 내려와 비단 치마를 스쳐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진 죄는 결국 죽어서도 죄가 되니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저승세계에도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이 계십니다. 명부전 안에 10지옥신과 함께 있는 지장보살입니다. 지옥 재판 중에 지장보살이 나타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 분은 보살이기 때문에 손에 지물, 물건을 들고 있는데요, 바로 지팡이와 구슬입니다. 지팡이는 지옥문을 열어 구원하고자 함이고, 구슬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빛을 밝혀 준다고 합니다.

지장보살의 존재는 지옥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있음을 알려주죠. 신은 참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분이구나,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지명·명소

39
세조가 걸었던 순행의 길

김지혜

속리산이 자랑하는 세조길입니다.



세조길

세조길은 법주사 삼거리 문주에서 시작해 복천암까지 편도 약 3.2km입니다. 왕복하면 약 2시간 정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왜 세조길 일까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조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세조는 계유정란으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돼서 직전법과 호패법을 시행하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공이 있습니다. 불교에 호의적이어서 불교 서적을 편찬하고 많은 절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공신의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군인을 줄이며 총통위를 없애 화약무기 발전을 정체한 잘못도 있습니다.

세조는 이곳 속리산에 언제, 왜 왔을까요?

세조는 왕이 된지 10년 째 되던 해에 이곳 속리산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가가 보은현 동평을 지나서 저녁에 병풍송에 머물렀다. 중 신미가 와서 뵙고, 떡 1백 50동이를 바쳤는데, 호종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록을 보면 “임금이 속리사에 행행하고, 또 복천사에 행행하여, 복천사에 쌀 300석, 노비 30구, 전지 2백결을, 속리사에 쌀 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신시에 행궁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세조는 당시 조선의 3대 선원 중 하나였던 복천사, 지금의 세조길 끝에 있는 복천암에 와서 수양대군 때부터 친분이 있던 신미스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목조문수동자좌상의 안에서 발견된 세조의 옷에 피고름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아 당시 세조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2년 후 실록에 따르면 가슴과 배가 아파서 현호색을 가미한 칠기탕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칠기탕은 울화병에 먹는 약이랍니다.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울화병이 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이런 심신의 고통을 신미스님을 만나 불법에 의지하고 온천에서 요양하면서 다스리려고 속리산에 온 것입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얻은 왕의 자리가 썩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미 스님과 세조임금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세조길 중간에 있는 목욕소에서 세조임금이 씻고 피부병를 고쳤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몸과 마음에 건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속리산 세조길에는 세조임금과 관련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세조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고 아울러 속리산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

세조의 피부병을 고쳤다는 목욕소

김지혜

복천암에서 조금 못미친 곳에 얼음처럼 차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울창한 소나무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얕은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목욕소라고 부르는데 세조임금이 목욕을 하고 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위 기간 중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던 세조는 법주사에서 국운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한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산책 하던 세조임금은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조임금 앞에 미소년이 나타나 "마마 소생은 월광태자 올시다. 약사여래의 명을 받아 왔습니다. 대왕의 병은 곧 완쾌될 것이니 너무 고심치 마시옵소서."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말대로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목욕소

세조의 피부병은 조카와 신하들을 죽이고 왕이 된 자신의 죄 무게였고, 고통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속리산의 건강한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세조가 그제야 피부병에서 벗어난 것 아닐까요?

41
왕이 다녀간 복천암

지아람

복천암은 법주사의 암자 중 한 곳입니다.


복천암

고려 성덕왕 19년에 만들어진 사찰로 고려의 공민왕과 조선의 세조가 다녀간 곳입니다.
공민왕은 복천암에 다녀가면서 복천암 극락보전에 "무량수(無量壽)"라는 편액[1] 을 친필로 써서 내렸습니다.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으로 아미타불의 또 다른 이름인 무량수불이라는 이름에서 따와 무량수전이라고 이름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량수라는 뜻은 한없이 긴 생명을 뜻하는 불교용어입니다. 어째서 공민왕이 복천암에 친필 편액을 내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민왕이 신돈을 사부로 삼고 불교를 숭상하였기에 때마침 다녀간 복천암에 편액을 내려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조는 복천암을 다녀가면서 쌀 300석과 노비 30명, 전지 2백결을 하사했습니다. 세조가 복천암까지 온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신미대사가 이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1449년 신미대사는 세조가 수양대군인 시절에 세종의 명으로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미대사와 함께 석보상절을 편찬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석보상절은 초기의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사제의 연을 맺었고, 세조가 불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편액 : 종이, 널빤지, 비단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42

왕의 탯줄을 모신 명당, 태실

김지혜

조선시대 최고의 VIB(Very Important Baby)는 누구일까요?

역시 왕조시대인 만큼 왕의 아들과 딸일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태(胎)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태를 명당길지에 묻으면 무병장수하며 남자아이는 총명하여 학문을 잘 닦고 높은 관직에 이르며, 여자아이는 예쁘고 단정하여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보은 순조 태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신체의 일부인 태를 좋은 곳에 묻으면 태의 주인인 아기도 좋은 기운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죠. 이런 믿음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실은 삼국시대 신라의 장수인 김유신의 것입니다.

조선왕실에서는 명당에 태를 묻고 석물로 꾸며서 관리했는데 이것을 태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속리산에는 조선 23대 임금인 순조임금의 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조태봉도를 보면 태실에서 300보 되는 지점에 금표를 세워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하마비를 세워 가마나 수레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에 태실의 안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법주사에서 태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해도 많은 태실이 훼손당했습니다. 태실이 명당에 자리 잡기 때문에 몰래 태나 시신을 암매장하면서 훼손되기도 하고 태실의 부장품을 노린 도굴꾼 때문에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속리산에 있는 순조임금의 태실은 태실비와 석물이 남아 있어 비교적 온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호와 부장품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서삼릉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제는 전국의 모든 태실에서 부장품을 꺼내 서삼릉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백자 태호들이 질그릇으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그리고 빈 태실지는 민간에 팔거나 하사되었습니다.

43

우리도 화북~문장대 코스를 가보자!

김용헌

속리산은 예로부터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의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위들이 많은 험준한 산으로 8봉(峰)8대(臺)의 높은 산봉우리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함께 등산할 문장대는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곳일까요? 아직 많은 분들께서 문장대를 속리산의 정상으로 알고 계시는데 속리산의 정상은 '천왕봉'으로써 해발 1,054m의 '문장대'보다 약 4m가 더 높습니다.
화북~문장대 코스는 왕복 4시간 동안 계곡을 옆에 끼고 오르는데 그늘이 진 곳이 많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최단 시간에 문장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2] 8봉 : 천왕봉,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 8대 : 문장대, 입석대, 경업대, 배석대, 학소대, 신선대, 봉황대, 산호대

차바퀴 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세조가 문장대에서 신하들과 강론을 펼쳤을 때, 화북 쪽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것이 빨랐기 때문에 수레에 음식을 담고 이곳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수레가 올라올 정도로 길이 완만하고 평평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차바퀴 골입니다.

오송폭포와 성불사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은 지금의 지명인 '화북'이 아닌 '시어동'이라고 부릅니다. 모실 시(侍), 다스릴 어(御), 골짜기 동(洞)을 사용해 임금의 시중을 들었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어원으로는 먹을 식(食)자를 사용해서 '식어동'이 '시어동'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네 이름에서도 차바퀴 골까지 임금의 음식을 만들어 싣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바퀴골



쉴바위

문장대 코스의 중간 지점인 쉴바위입니다. 바람도 발걸음도 쉬어간다고 해서 쉴바위라고 부릅니다. 쉴바위 모습을 가만히 보면 꼭 3명의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과 같으며, 가운데 바위가 옆에 있는 바위에 기대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만지며 땀을 닦아주죠.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남은 코스 다시 힘내서 오르라는 쉼터입니다.



백일산 제단

마지막 오르막 경사, 이 고개까지 오르면 숨을 할딱거린다 하여 흔히 할딱고개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바로 백일산 제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옛날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를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이곳에서 백 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바로 이곳으로 올라와 백 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 그토록 원하던 건강한 사내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백일산 제단 위에는 촛불을 켰었던 흔적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그 부부의 간절함이 이 바위 위에 켰던 촛불 흔적으로 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명을 듣고 연상 되는 것을 한 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독도, 두 번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세 번째 강원도 영원군 선암마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닮은 바위, 섬, 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속리산 문장대 정상부에서도 한반도를 닮은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바위 위에 휴게실과 화장실 같은 가설 건축물이나 철탑 같은 공작물이 있어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 문장대 정상부 생태복원을 위하여 철탑과 휴게소 등을 철거하자 비소로 한반도 바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장대

문장대는 속리산의 8대 중 하나로 예전에는 운장대(雲藏臺)로 불렀습니다. 구름 운(雲), 감출 장(藏), 평평할 대(臺)를 써서 봉우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을 듯한 절경을 이루는 높고 평평한 곳을 의미합니다.

조선 성종 때 지어진 일종의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속리산 편에 『산마루에 높은 대가 있는데 층이 쌓인 것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를 알 수 없다. 그 넓이는 사람 3천 명이 앉을만하고 구덩이가 가마솥만 한 것이 있어 그 속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 와도 더 많아지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부터 문장대의 경관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속리산은 조선시대 7대 임금인 세조와도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세조가 복천암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약사여래의 명을 받은 월광태자가 꿈에 나타나 동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영봉이 있으니 그 곳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데리고 올라가 보니 사방이 구름과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영롱한 봉우리가 보였고, 그 정상에 올라보니 널따란 바위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책을 집어 보니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명시한 책이라 크게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글을 읽으며 신하들과 강론을 하였는데, 그 뒤부터 이곳을 글 문(文)자로 바꿔 문장대(文藏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장대는 이처럼 우리 선조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이고,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장대를 많은 탐방객이 찾는 이유는 정상에 올랐을 때 주변 경관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속리산 경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44

화북에서 만나는 시원한 폭포 이야기

윤주영

오늘은 저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화북지구의 폭포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장대를 올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오송폭포는 높이 15m로, 5단의 층을 이룬 것이 특징이며 예전에 폭포를 다섯 그루의 소나무가 둘러 싸고 있었기에 오송(五松)폭포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포 주변에는 오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를 흐르는 오송폭포는 가뭄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산행 전 탐방객에게는 산뜻한 기분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해주고 산행 후 탐방객에게는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박한 데에 멋이 있고 정감 있는 화북의 오송폭포입니다.



오송폭포

다음으로 만나볼 폭포는 장각폭포입니다. 장각동에서 천왕봉을 오르는 길에 볼 수 있는 폭포로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시작한 시냇물이 장각동 계곡에 굽이굽이 흘러 6m 높이의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폭포 위에는 금란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 금란정의 금란(金蘭)은 단단하기가 황금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향기와 같은 사귐, 즉 깊은 우정을 뜻하는 금란지교(金蘭之交)에서 따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알고 보니 절친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폭포 주변을 감싸 더욱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듭니다.



장각폭포

장각폭포의 검푸른 용소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낙수의 여파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수면을 보고 있으면 금방 용이라도 치솟아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장각폭포는 주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태양인 이제마', '무인시대'등 드라마의 촬영지로 소개되기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장각폭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옥량폭포

마지막으로 소개할 폭포는 백악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잡은 옥량폭포입니다. 폭포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작은 규모이지요? 폭포의 목습을 보면 기다란 돌이 다리처럼 놓여져 있는데 바로 저 돌다리를 천작돌다리라고 합니다. 천작이란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진,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기다란 돌이 폭포 위에 다리처럼 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옥량폭포를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은 바로 서서 보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다리 아래의 구멍을 발견하셨나요? 위에서 흐르는 물이 저 구멍으로 한데 모여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작은 규모의 폭포이지만 장마철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 탐방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폭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화북의 폭포를 만나보았는데요, 다른 유명하고 큰 폭포 보다는 작지만 그 나름대로의 멋과 여유를 품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시사철 변하는 숲의 모습은 마치 선물포장지를 풀어 볼 때의 설레는 기분을 안겨줍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어도 고풍적인 멋의 수묵화가 그려지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화려한 색깔이 입혀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선물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더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숲 속리산에서 폭포를 시작으로 멋진 풍경과 시원한 바람을 마음껏 담으시고 안전하고 즐겁게 탐방하시기 바랍니다.

45
속리산 최고봉, 천왕봉

윤태현

천왕봉은 해발 1,058m로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속리산은 특히 불교와 관련이 깊어 많은 봉우리들이 불교와 연계된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왕봉 이름도 불교의 수호신 중 하나인 사천왕 등을 거느리는 제석천왕에서 전해진 이름입니다. 제석천왕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반드시 동석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일을 합니다.



천왕봉은 북쪽으로는 문장대까지 이어지는 주능선이 한 눈에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만날 수 있는 경관이 훌륭한 곳입니다. 또한 한강과 금강의 분수산맥을 이루는 한남금북정맥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왕봉 정상에서 동쪽으로 빗물이 흐르면 낙동강으로, 남쪽으로 흐르면 금강으로, 서쪽으로 흐르면 한강으로 가는 삼파수[3]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왕봉은 지리·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야생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 선조들이 의미를 담고 잘 보전해왔던 만큼 우리 후손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삼파수(三派水) : 봉우리에서 세 방향으로 흐르는 물



46

조선의 유교문화가 깃든 화양서원

윤태현

조선시대 유학의 문화가 깃들어있는 화양서원입니다.

서원은 유학자로 명성이 높은 성현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육성하는 사설기관을 말합니다. 또 지방 사족(권력자 계층)의 지위를 강화해주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발생했던 4대 사화[4]로 향촌에 은거하게 된 사림의 활동 기반이 되었습니다.



화양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24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의 학제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 백운동서원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1550년 이황의 건의로 왕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간판을 하사하면서 책, 노비, 전결 등을 주어 장려했고, 이것이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사회에 정착하고 형성된 모습으로서, 한국에 맞게 변화한 성리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곳 화양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진 못했습니다.
화양서원은 1695년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 선생을 제향하기 위해 세워졌고 1696년 사액을 받으면서 노론 사림의 본거지이자 조선 후기까지 전국에 걸쳐 세워진 44개의 송시열 제향 서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4] 4대 사화 :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송시열 선생은 인조부터 숙종까지 조선 후기 주자학의 대가로 효종, 현종 두 국왕의 왕자 시설 스승이기도 하며 이조판서, 좌의정을 지낸 최고의 엘리트셨습니다. 과거 예송논쟁으로 인해 숙종의 미움을 사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국문을 위해 한양으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곳 화양서원이 송시열 선생을 모시는 서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되었던 이유는 송시열 선생이 병자호란 후 이곳 화양동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양서원은 영조 때 노론 일당 전제가 이루어지자 위세가 날로 더해갔습니다. 국가에서 물질적 지원은 물론, 관료나 유생들이 기증하여 화양서원의 소속 토지와 재산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화양서원은 제수천[5] 징수를 빙자하여 각 고을에 화양묵패[6]를 보냈는데 이는 관령을 능가할 정도였고 이를 거부하는 고을의 수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또 양민을 피역시키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질을 하거나 사형을 하는 등의 패악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노론 정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어 철종 때 양민의 피역을 금지시켰다가, 흥선대원군 때 서원철폐가 단행되면서 화양서원도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서원의 모습은 화양서원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존재하던 대부분의 서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철폐된 화양서원은 이후 유생들에 의해 복원하려 했으나 일제강점기 때 모두 헐리고 한참이 지난 2006년부터 일부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원의 시작은 선현의 정신과 뜻을 되새겨 학문과 덕행, 인격을 갈고닦는다는 훌륭한 목적이었으나, 결국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화양서원을 통해 초심,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한 초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제수천 : 제사를 지내기 위한 비용

[6] 화양묵패 : 화양서원에서 검은 도장을 찍어 발행한 공문서

47

도가 비로소 다시 싹트는 곳, 화양구곡

이천순

여러분께서는 구곡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구곡은 쉽게 아홉 구(九), 굽을 곡(曲) 즉, 아홉 개의 굽어진 계곡을 뜻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저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흐르는 계곡과 그 배경이 되는 산이나 언덕의 풍경이 수려한 곳에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구곡이라는 말은 중국 송나라 때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 창시자 주자의 무이구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자가 유학에서의 깨달음 즉 '도(道)'를 얻기 위해 산수가 수려한 무이산에 들어가 정진하면서 무이산의 아홉 굽이 계곡의 경치에 반하여 '무이구곡가'를 지은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성리학을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 시대에 들어서 많은 유학자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에 구곡을 붙이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곡은 현재 남한에만 102개가 있고, 문헌상에 등장하는 구곡이 25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의 학문과 경치에 관한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구곡 중 절반 정도가 이곳 화양구곡 근처인 충북과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곳 주변이 속리산과 소백산 같은 깊은 산이 있어 계곡이 발달했기도 하지만, 수도인 한양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유학자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양구곡은 조선왕조실록에 그 지명이 300번 이상 등장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구곡이었습니다.

제4곡인 금사담은 물속에 보이는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큰 바위에 전각이 보이시나요? 저 전각의 이름은 암서재입니다. 1666년 송시열 선생이 바위 위에 지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제5곡인 첨성대는 큰 바위가 첩첩이 층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첨성대에서 별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상징적인 의미로 '님,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조임금의 글 '만절필동(萬折必東)'과 명나라 의종의 글 '비례부동(非禮不動)'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이곳에서 임금을 바라보았다고 하여 첨성대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8곡인 학소대는 기암괴석 절벽에 청학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운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위가 쌓여 봉우리를 이루고 큰 소나무들이 운치 있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구곡마다 그에 관한 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8곡 학소대에 관한 시가 아름다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 깃든 지 얼마나 되었길래
지금은 오히려 누대만 남아 있네
신선을 볼 수 없으니
서글퍼 부질없이 서성이네』

이처럼, 화양구곡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조선 시대의 역사·문화적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명승지'입니다.


제1곡 경천벽


제2곡 운영담


제3곡 읍궁암


제4곡 금사담


제5곡 첨성대


제6곡 능운대


제7곡 와룡암


제8곡 학소대


제9곡 파천

화양구곡은 기암괴석이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제1곡 경천벽, 구름의 그림자가 맑은 물속에 비친다는 제2곡 운영담, 송시열 선생이 효종을 그리워하며 효종의 기일 때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였다는 제3곡 읍궁암, 물속의 모래알이 금싸라기 같은 빛을 띤다는 제4곡 금사담, 층층이 쌓은 바위 위에 올라 별을 관측했다 하는 제5곡 첨성대, 커다란 바위가 우뚝 솟아 구름을 찌를 듯한 제6곡 능운대, 길고 넓은 바위의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을 닮았다는 제7곡 와룡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기암절벽 사이에 청학이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키웠다는 제8곡 학소대, 넓은 계곡 전체 바닥이 바위로 펼쳐져 그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마치 용의 비늘을 꿰어놓은 모습처럼 보이는 제9곡 파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9곡인 파천이 특정 장소로 전해진 것은 우암 송시열 이후부터입니다. 우암의 수제자 수암 권상하가 화양구곡 각각의 이름을 짓고 단암 민진원의 글씨로 바위에 구곡의 이름을 새기면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많은 선비들은 아름다움을 잊지 않기 위해 파천을 찾은 뒤 느낀 바를 시로 지어 지금에 전하고 있습니다. 시를 감상하면서 선조들의 자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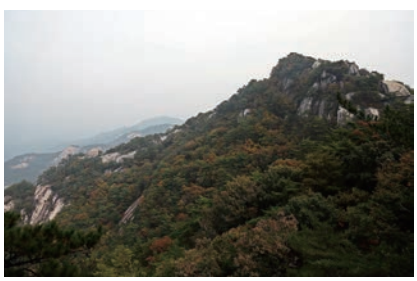
『구곡이라, 마음과 눈이 갑자기 떠지는데
긴 소나무와 흰 돌이 맑은 시내에 펼쳐졌네.
파천 계곡이 특별히 발원의 머리가 되는 물인데
완연히 화양동 중앙에 있네』

48

도를 깨달아 지성을 드리는 곳, 도명산

이천순

화양구곡을 따라 걷다보면 도명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명산



괴산 도명산 마애불상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길고 커다란 화양구곡의 명산이라 할 수 있는 도명산은 백두대간 중 소백산맥의 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명산의 정상에서는 백두대간의 중심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도명산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화양구곡과 군자산, 칠보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대야산, 남쪽으로는 낙영산과 주봉산, 문장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름다운 속리산의 능선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명산 마애불 부근에서는 도를 닦으며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명산 정상 부근에 자리한 고려시대에 제작된 마애불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존불이 9.1m 크기이지만 예전에는 15m가 넘는 대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존불 양쪽으로 보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명산의 마애불은 고려 초에 유행한 선각마애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곡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기암괴석, 고려시대의 마애불까지 만나볼 수 있는 도명산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경관을 가진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계곡의 맑은 물과 기암괴석의 웅장함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9
신선이 노닐다 가는 선유구곡

강현지

선유구곡은 짧은 거리 안에 구곡이 배치되어 있고
바위와 계곡이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유구곡

선유구곡은 옛날부터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조선 중기까지 선유팔경으로 불리다가, 퇴계 이황 선생이 산과 물, 바위, 노송이 잘 어우러진 경치에 반해 아홉 달 동안 머물며 구곡의 이름을 지어 새겼다고 합니다.

제1곡인 선유동문을 시작으로 절벽의 높이가 수백 척이며 바위 층이 첩첩을 이루어 하늘의 지붕 모습을 한 제2곡 경천벽, 푸른 학이 둥지를 틀었다고 하는 제3곡 학소암, 바위가 평평하고 가운데가 절구처럼 패여있는 제4곡 연단로, 용이 물을 내뿜는 듯이 쏟아내는 물소리가 벼락을 치는 소리와 같다는 제5곡 와룡폭, 나뭇꾼이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며 노니는 것을 구경하는 동안 도끼자루가 썩어 없어졌다는 제6곡 난가대, 바위가 평평한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어 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제7곡 기국암, 바위의 모습이 마치 거북이가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것 같은 제8곡 구암, 두 개의 바위가 양쪽으로 서 있는 제9곡 은선암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이 구곡에 얽혀있는 신선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1곡인 선유동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신선이 내려와 노닐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제4곡인 연단로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연달아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바위가 평평하고 가운데가 절구처럼 패어 있어 신선들이 이곳에서 금단을 만들어 먹고 장수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금단은 먹으면 영원히 오래 살고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는 약입니다. 제6곡 난가대와 제7곡 기국암에서는 나무꾼과 신선들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과거 한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바위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바둑을 두던 한 노인이 그에게 '여기는 신선들이 사는 선경이니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을 차린 나무꾼이 옆에 세워둔 도끼를 찾았는데 도끼자루는 이미 썩어 없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얼굴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물었더니 그의 5대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갔던 날을 헤아려 보니 무려 150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도끼자루가 썩어있던 곳을 난가대라고 불렀고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곳을 기국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제9곡인 은선암은 신선이 은거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옛날에 이곳에 퉁소를 불어 달을 희롱하던 신선이 머물렀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퉁소는 피리랑 비슷한 악기입니다.

이렇게 신선이 내려와 노닐던 선유구곡을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1곡 선유동문



제2곡 경천벽



제3곡 학소암



제4곡 연단로



제5곡 와룡폭



제6곡 난가대



제7곡 기국암



제8곡 구암



제9곡 은선암

50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각연사

신재형

기암괴석과 계곡 등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칠보산 아래 자리한 각연사는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각연사가 있는 괴산지역은 북쪽으로 고구려, 남쪽으로 신라로 통하는 위치에 있어서 불교가 일찍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신라 법흥왕 때 유일대사가 창건한 각연사는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지만 과거에는 충북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습니다.



각연사

유일대사가 사찰을 지을 때 재목을 다듬는 곳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까마귀떼가 날아들어 대패밥과 나무 부스러기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보니 연못에 대패밥이 떨어져 있었고, 그 속을 보니 돌부처가 하나 있고 광채가 퍼져 나왔다고 합니다. 유일대사가 이것을 보고 연못을 메운 후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연못 속의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깨달을 각(覺), 못 연(淵) 자를 써서 각연사라고 이름했습니다.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보물 제1370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보물 제12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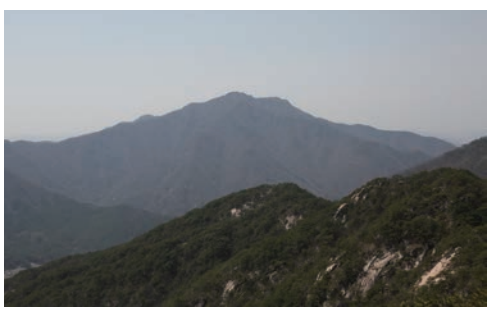
과거 큰 절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흔적을 사찰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맷돌이나 기름틀, 기단 등으로 쓰였을 긴 석재들, 석등 또는 부도의 지붕돌 등도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또 창건설화와 관련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각연사 중창에 기여한 통일대사탑, 통일대사탑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속리산의 오래된 고찰입니다.

51

일곱 개의 보석과 같은 절경을 가진 칠보산

김용헌

쌍곡구곡의 주봉 해발 778m의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일곱 개의 봉우리가 불교의 일곱 가지 보물인 금, 은, 산호, 거저, 마노, 파리,[7] 진주처럼 아름답다 하여 이름을 붙인 칠보산을 만나보겠습니다.

칠보산 산행의 시작인 떡바위 입니다. 바위의 모양이 떡시루처럼 널찍하다 하여 이름 붙은 곳인데요, 이 떡바위를 지나면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계곡물이 있는 쌍곡구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쌍곡구곡을 지나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면 금새 칠보산 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기 전 만나는 청석재는 바위에 낀 이끼가 마치 푸른 돌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 붙었습니다. 청석재에서는 주변의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입니다.

청석재를 지나 정상에 올라서면 속리산의 문장대, 관음봉, 묘봉도 보이고 막장봉, 장성봉과 대야산까지 한 폭의 병풍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말이 생각납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경치 느끼시면서 오늘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거저(바다조개), 마노(석영), 파리(수정)

52
군자의 모습을 닮은 군자산

김용헌

괴산을 대표하는 명산인 군자산은 예로부터
충북의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산세가 빼어난 곳입니다.



군자산

덕분에 군자산을 부르는 이름은 많았으나 덕을 쌓은 군자의 모습을 담은 산이라 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쌍곡구곡을 따라 걷는 군자산은 굉장히 힘든 코스의 산행입니다. 군자산을 산행하다 보면 부부송이라고 부르는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소나무가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다보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데, 부부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깝고 다정해집니다.

험한 산세를 따라 어렵게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시원함, 통쾌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능선의 모습은 올라오면서 느낀 힘듦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첫걸음이 힘든 것 뿐이지 출발을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오늘 군자산을 오르며 배운 것이 아닐까요? 끝까지 해낸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부부송

53

기암절벽 사이로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 쌍곡구곡

신재형

쌍곡구곡은 10.5km에 걸친 계곡으로 호롱소, 소금강,
병암(떡바위), 쌍벽, 용소, 쌍곡폭포, 선녀탕, 장암(마당바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곡구곡

낙향한 선비들이 후학을 양성했던 충북 지역에는 많은 수의 구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쌍곡구곡은 산수가 아름다워 조선 때 퇴계 이황, 송강 정철 등 당시에 수많은 유학자와 문인들이 찾았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2곡인 소금강은 빼어난 절경을 보여주는 곳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과 같다하여 소금강이라 이름 했습니다.

제3곡인 떡바위는 넓적하게 생긴 바위로 그 모습이 마치 시루떡을 잘라놓은 모습과 같다 하여 떡바위라고 불리며 떡바위 주변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한두 집씩 모여살기 시작해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7곡인 쌍곡폭포는 협곡 사이에 위치한 작은 폭포로 물 흐르는 모습이 마치 여인의 치마폭을 닮았습니다. 봄이면 산철쭉과 어우러진 물줄기가 감탄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호롱불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 제1곡 호롱소, 바위 밑으로 나있는 동굴에 문수보살을 모신 암자가 있었다는 제4곡 문수암, 계곡 양쪽으로 10m가 넘는 바위를 깎아 세운 듯한 제5곡 쌍벽,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풀려 들어가도 모자라는 깊이의 연못인 제6곡 용소, 선녀들이 달밤이면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제8곡 선녀탕, 물 흐르는 계곡 전체가 40m가 넘는 넓은 바위로 이루어져 그 모양이 마치 마당처럼 보이는 제9곡 장암이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계곡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쌍곡구곡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계곡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제1곡 호롱소



제2곡 소금강



제3곡 떡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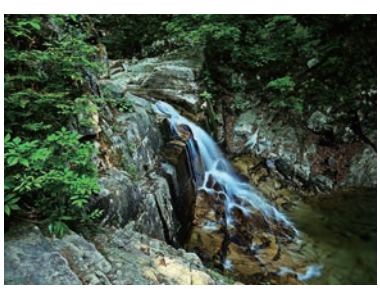
제4곡 문수암



제5곡 쌍벽



제6곡 용소



제7곡 쌍곡폭포



제8곡 선녀탕



제9곡 장암

54
깊은 골짜기를 돌아 물이 흐르는 갈론구곡

신재형

갈론구곡을 가기 위해서는 갈론 마을을 지나야 합니다.
갈론 마을은 갈은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이 동네가 칡이 많이 우거져 은거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갈론 마을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갈론구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1곡 장암석실에는 갈은동문(葛隱洞門)이 새겨진 방향으로 구곡시도 새겨두었는데, 구곡시를 새긴 암벽 아래가 마치 바위 집 같다고 해서 집바위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암석실에 새겨져 있는 구곡시는



갈론구곡

冬宜溫奧夏宜凊 겨울엔 따듯하고 여름은 시원하네
與古爲隣是接芳 자연과 이웃하니 즐겁기만 하구나
白石平圓成築圃 흰 암반은 평평하고 둥글어 채소밭을 이루고
靑山重聳繞垣廧 청산은 겹겹이 솟아 담장을 둘렀네

제2곡 갈천정은 중국 상고시대 임금 중 도덕으로 선정을 펼친 갈천씨(葛天氏)처럼 욕심 없고 순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갈천씨지민(葛天氏之民)이 살던 곳이란 뜻입니다. 신선이 내려왔다는 제3곡 강선대, 바위 아래 거울처럼 맑은 담에 구슬 같은 물방울이 흐르는 제4곡 옥류벽, 황갈색 바위벽 위로 계곡물이 반사되어 햇볕이 닿으면 비단처럼 보인다는 제5곡 금병, 거북을 닮은 바위 제6곡 구암을 지나면 제7곡 고송유수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송유수재는 늙은 소나무 아래로 흐르는 물가에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만큼 널따란 계곡과 집터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곱 마리의 학이 살았다는 제8곡 칠학동천, 신선이 바둑을 두던 자리 제9곡 선국암으로 갈론구곡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국암에는 바둑판 바위의 네 모퉁이에 사노동경(四老同庚)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네 명의 동갑내기 노인들이 바둑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선국암에 새겨져 있는 구곡시는

玉女峰頭日欲斜 옥녀봉 산마루에 해가 저물어
殘棋未了各歸家 바둑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네
明朝有意重來見 다음날 아침에 뜻이 있어 다시 찾으니
黑白都爲石上花 바둑알 알알이 바위 위에 꽃이 되어 피어 있네

선국암은 실제로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바둑 한마당이 열리고 매년 괴산바둑협회가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1곡부터 제9곡까지 갈론구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저 길옆에 흐르는 계곡 정도로만 생각했던 하천들에도 이름이 있고 유래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치던 것들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주고 의미를 새겼던 선조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 바랍니다.


제1곡 장암석실


제2곡 갈천정


제3곡 강선대


제4곡 옥류벽


제5곡 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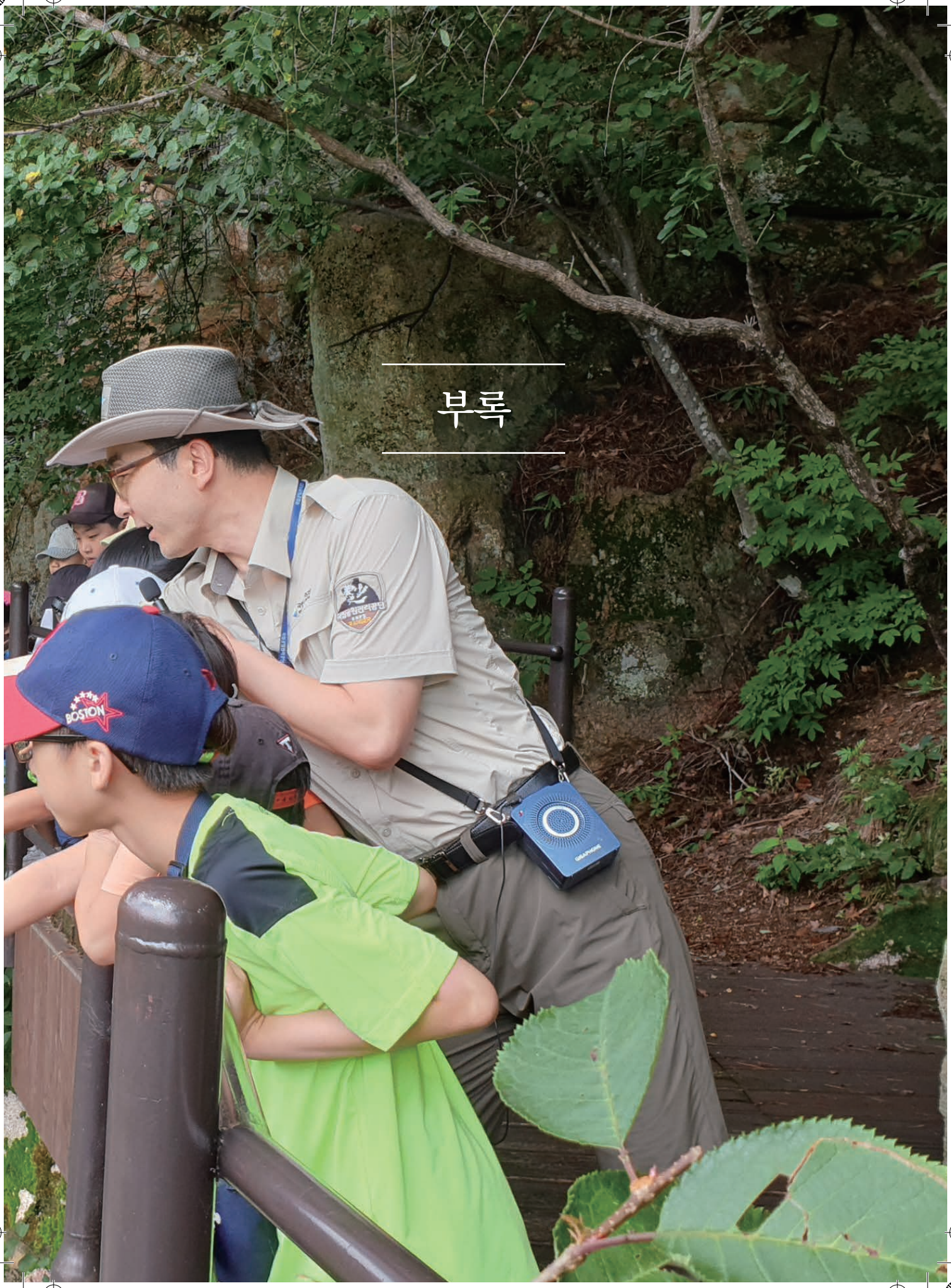

제6곡 구암


제7곡 고송유수재


제8곡 칠학동천


제9곡 선국암




부록


[세조길로 떠나는 자연이야기]
13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 p.38
16 갈등(葛藤)의 어원, 칡과 등나무 p.42
14 누린내가 나는 누리장나무 p.40
20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삶
갈겨니와 피라미 p.48
법주사
법주사삼거리
남산화장실
19 여름을 깨우는 소리, 매미소리 p.46
39 세조가 걸었던 순행의 길 p.92
22 우리나라 수생 생태계의
1인자 수달 p.54


문장대, 복천암 방향
41 왕이 다녀간 복천암 p.95
세심정삼거리
탈골암
천왕봉, 태실 방향
1 속리산의 깃대종,
하늘다람쥐와 망개나무 p.14
탈골암화장실
40 세조의 피부병을 고쳤다는
목욕소 p.94
23 귀여운 얼굴의 포식자, 담비! p.56

자연환경해설사의
속리산 이야기

발 행 일 | 2020. 5.
발 행 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덕구
기　　획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김명옥
집　　필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이천순, 김용헌, 추인식, 윤주영, 강현지, 양승희,
김지혜, 신재형, 윤태현, 지아람
발 행 처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28910)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홈페이지 | http://songni.knps.or.kr/
가　　격 | 비매품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